

# KCGS Report

제14권 12호 | 통권 제180호  
2024. 12.



한국ESG기준원

## KCGS Report 제14권 12호

발행일: 2024년 12월 30일

발행인: 이 정의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4권 12호 | 2024. 12.

## ● ESG 동향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동향	2
-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지급 현황 및 향후 과제	10
- 국내 기업 기후정보 공개 현황 분석(1):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2호를 중심으로	21

## Global News

1.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자문위원회, ISSB 기준 도입 권고안 발표	42
2. 유럽보험연금감독청, 지속가능성 위험의 건전성 조치 최종 보고서 발표	44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동향

김수연\*

- ▶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에 따라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됨
- ▶ 모회사와 자회사의 승계계획 수립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내 5대 금융지주의 경우, 이사회 승계계획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프로세스로 체계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 이에 해외 은행 및 금융지주에서 이사회 승계계획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체계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
- ▶ 이사회 승계계획 프로세스를 수립한 후 명문화하여 이사회 승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시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 이사회 승계계획의 개념 및 관련 가이드라인

- 이사회 승계계획의 개념
  - 이사회 승계계획이란 회사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 및 교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이사회 승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이사회 구성과 성과를 평가해야 함
  -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과 전문성 구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배경과 전문 분야를 가진 구성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토대로 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해야 함
  - 이사의 유고 및 갑작스러운 사임 등 이사회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겼을 경우 또한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교체해야 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관련 국내 가이드라인
  - 2023년 12월 1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함

---

\* KCGS ESG평가본부 김수연 연구원, sykim@cgs.or.kr

- 해당 모범관행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함을 지적하며, 사외이사 지원조직, 최고경영자 승계, 이사회 구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이에 대한 핵심 원칙을 안내함
  - 특히 이사회의 구성에 대하여 이사회가 집합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 등을 활용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관련 해외 가이드라인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UK Corporate Governance Code에서 다루고 있음
  -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24 - Section 3 Composition, succession and evaluation<sup>1)</sup>
    -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승계계획이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제시함
    - 이사회 승계계획의 점검 및 감독 주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을 명시함
  -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Guidance 2024 - Section 3 Composition, succession and evaluation<sup>2)</sup>
    - 해당 가이드라인은 승계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의장이 제시하는 이사회의 최적화된 구성에 대한 비전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필요한 역량, 현재 구성과의 간극 등을 파악하고, 승계원칙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수립된 승계원칙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시 비상 상황, 중기, 장기 등 여러 상황과 기간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 권고함
    - 이사회 승계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장함

### 국내 5대 금융지주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동향

- 이사회 승계계획은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기업에서 대외비에 속하므로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사의 이사회 승계계획을 확인할 수 없음
- 2023년 사업보고서와 2024년 반기보고서에서 확인가능한 이사회 안건, 공시된 관련 내규(정관, 이사회 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를 통해 국내 금융지주의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에 사업보고서 공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금융지주 중 총자산

1) [https://media.frc.org.uk/documents/UK\\_Corporate\\_Governance\\_Code\\_2024\\_a2hmQmY.pdf](https://media.frc.org.uk/documents/UK_Corporate_Governance_Code_2024_a2hmQmY.pdf)

2) <https://www.frc.org.uk/library/standards-codes-policy/corporate-governance/corporate-governance-code-guidance/>

- 규모 상위 5개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말하며, 이하 합하여 “국내 5대 금융지주”라 함)를 분석함
- 2023년 사업보고서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4년 반기보고서에서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 안건명과 안건설명에서 직접적으로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또는 검토 사례를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있음
    - KB금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매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원칙(안)을 결의하고 있음
    - 신한지주는 2023년 11월 9일 개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안건을 통해 젠더 다양성, 이사회적 집합적 정합성, 이사회 전문성, 재임 경력 등을 고려하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을 수립하였다고 공시함
    - 우리금융지주는 2023년 2월 24일 개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 안건을 통해 후보군을 전문 경로와 추천경로,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결의함
  - 국내 5대 금융지주 모두에서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 관련 내규에서 이사회 승계계획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국내 5대 금융지주는 아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사회**의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 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KB금융 2023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첨부 정관 제43조 제5항

- 국내 5대 금융지주 모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아래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정관 제39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신한지주 2023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첨부 정관 제39조 (일부 수정)

- 모든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서 이사회 역량구성표 및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 5대 지주에서 이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경영, 경제, 금융, 회계, 법률(규제), 디지털, ESG 등으로 상당히 유사함
  - 다만 전반적으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후보군의 전문성 비중이 경영, 경제, 금융, 회계, 법률(규제) 등의 전통적인 역량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ESG, 디지털 등 비전통적인 역량 분야에서 전문성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종합적으로 국내 5대 금융지주 모두 역량구성표 작성, 이사회 구성 원칙 수립,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의 단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사회 승계계획을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통합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음

### 해외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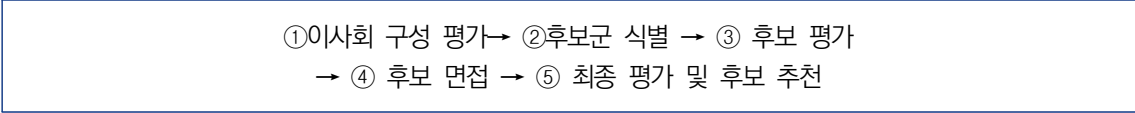
- 해외에서는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을 이사회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보고, 이사회 승계계획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Proxy Statement) 등을 통해 주주에게 승계계획상 정책과 관리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승계계획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한 3가지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사례1 - 미국 웰스 파고 은행(Wells Fargo)

- 미국 웰스 파고 은행(Wells Fargo)은 2024 주주총회 안건설명 자료<sup>3)</sup>에서 이사 선임 안건 관련 설명으로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프레임워크(Board Succession Planning Framework)를 채택하였음을 공개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주체는 이사회와 지배구조 및 후보추천위원회(Governance and Nominating Committee)임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시, 회사 전략과 리스크, 필요 역량과 전문성, 다양성, 이사의 임기, 은퇴 정책, 이사의 참석률과 참여도, 겸직 여부, 이사회 자체평가 결과 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며, 각 요소에 대한 현황을 공개함
  - 회사에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이사 후보의 역량구성표를 공개함
  - 이사 후보군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의 다양성을 성별, 인종, 연령 등의 지표를 통해 공개함

3) <https://www08.wellsfargomedia.com/assets/pdf/about/investor-relations/annual-reports/2024-proxy-statement.pdf>

- 임기와 은퇴 정책에 대해 재임 시 연령 상한선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재직 기간 등을 공개함
- 이사 후보군 선정 과정을 신규 이사 후보와 재선임 이사회후보에 따라 구분함
  - 신규 이사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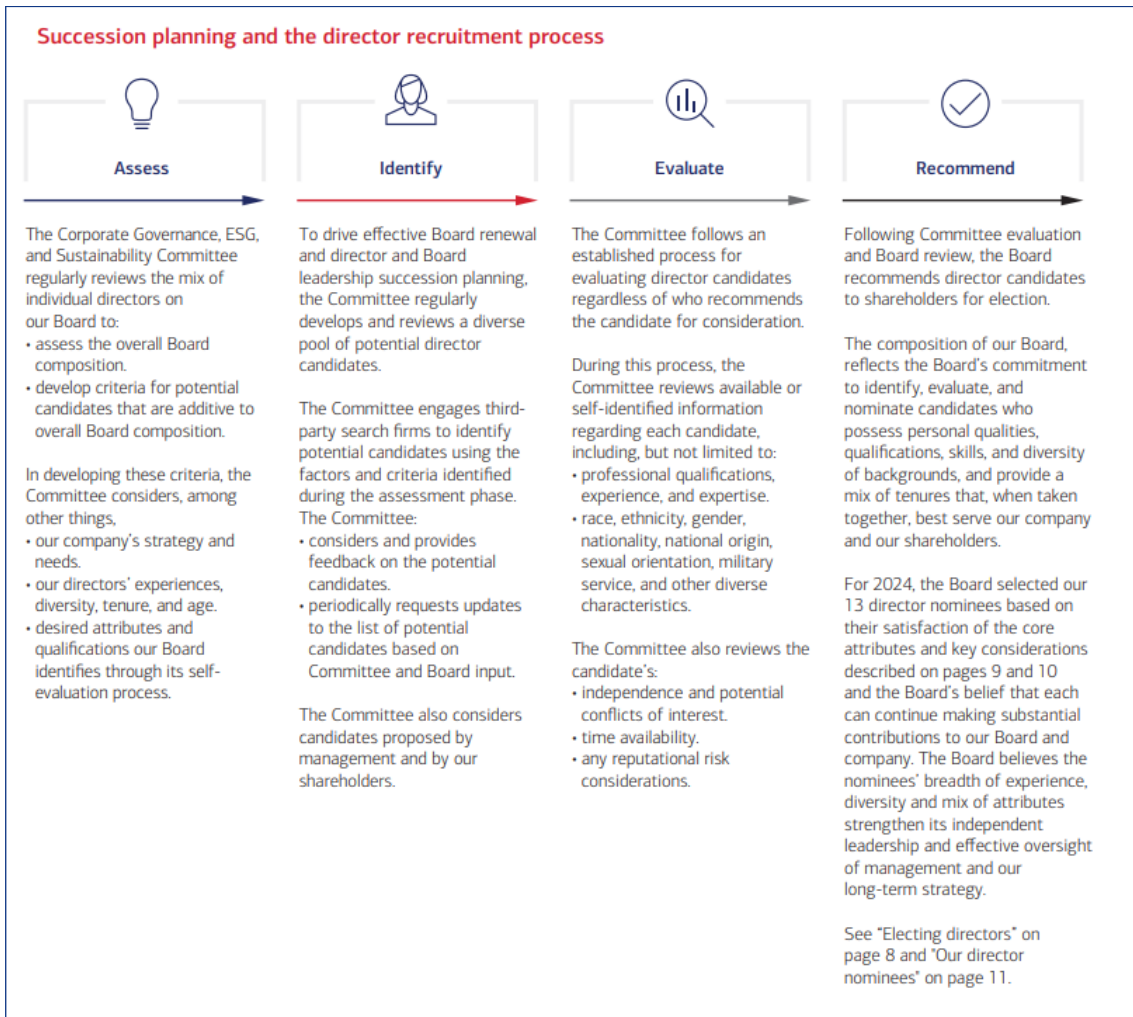
- 재선임 이사 후보: 후보의 재임 당시 기여도 등을 포함한 이사회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함

### 사례2-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

-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은 2024 주주총회 안건설명 자료<sup>4)</sup>에서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및 이사 선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주요 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ESG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The Corporate Governance, ESG, and Sustainability Committee)임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및 이사 선임 프로세스는 크게 분석, 식별, 평가, 추천으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됨
  - 분석(Assess): 위원회가 이사회의 전반적인 구성과 후보 발굴을 위한 기준 개발을 위해 개별 이사의 집합을 정기적으로 평가함. 후보 발굴을 위한 기준 개발 시, 회사의 전략과 니즈, 이사의 경험, 다양성, 임기 및 연령, 이사회 자체평가를 통해 식별한 필요특성과 자격요건 등을 고려함
  - 식별(Identify): 위원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교체 및 리더십 승계를 위해 다양한 이사 후보군을 발굴하고 점검함. 이사회는 제3의 외부 서치펌을 통해 분석 단계에서 식별한 요소를 이용하여 후보군을 식별함. 위원회는 식별 과정에서 후보군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후보군 리스트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요청함. 또한 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추천된 자도 후보로 고려함
  - 평가(Evaluate): 위원회는 그 추천인에 상관없이 이사 후보를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함. 위원회는 전문요건과 경력, 전문성, 인종, 민족, 성별, 국적, 출신 국가, 성적지향, 군 복무 여부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또는 스스로 밝힌 정보를 검토함. 또한 이사 후보의 독립성, 이해 상충, 평판 리스크, (이사회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등도 함께 검토함

4) <https://investor.bankofamerica.com/regulatory-and-other-filings/all-sec-filings/content/0001193125-24-064529/d529855ddef14a1.pdf>

- 추천(Recommend): 위원회 평가와 이사회 점검 후 이사회는 주주에게 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함.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시 개인적 특성, 자격요건, 역량 및 배경의 다양성, 재임 연한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회사와 주주에 최선인 후보를 식별, 평가하고 지명하고자 함



출처: Bank of America 2023 Proxy Statement

- 이사회 전체 차원의 승계계획뿐만 아니라 선임 독립이사와 이사회 의장에 대한 비상 승계계획을 수립함
- 이사회 자체평가 시, 이사회의 구성이 회사의 전략에 맞춰져 있고, 향후 회사의 필요에 적합한지에 비추어 평가함

### 사례3- 영국 HSBC 홀딩스(HSBC Holding Plc)

- 영국 HSBC 홀딩스(HSBC Holding Plc)는 2023 연례보고서(Annual Report)<sup>5)</sup>에서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에 대한 활동내역을 공개함
- 2023년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은 그룹의 전략 및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경험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으며, 선임 독립이사와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선임한 자와 선임 이유를 소개함
- 이사회가 우선순위를 설정한 전략인 아시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및 문화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은행업에 중요한 임원 경험, 2025년 말까지 주요 이사회 직책 중 하나를 여성이 맡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 후보군을 식별하였음을 밝힘
- 이사회 역량구성표에 대한 검토 후,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비즈니스 및 문화적 전문성을 후보자 식별에 있어 중점으로 선정하고 단기/중기적으로 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밝힘
-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및 포괄성 정책과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활용하여 위원회 구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감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효과 및 수립 시 고려 요소

- 국내 5대 지주들은 이사회 평가, 이사회 교육,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의 단계들을 이미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다만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공시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공시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
- 해외 사례의 경우, 이사회 평가 및 회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이사회 구성 현황 분석, 이사회 구성 원칙 수립, 후보군 식별 및 관리, 후보 추천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이사회 및 위원회 내 리더십 등 여러 층위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에 있어 해외 사례에서 차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구체화 및 체계화
  -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및 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 등의 출처에서 이사회 승계계획 관리현황 공시

5) <https://www.hsbc.com/investors/results-and-announcements/annual-report>

- 이미 국내 5대 금융지주의 경우 이사회 승계계획의 요소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이후 은행 및 은행 지주를 시작으로 금융업권 내에서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체계가 개별적 관리단계에서 통합적 프로세스로 빠르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도입 과정에서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이사회 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내실화 및 공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내 이사회 평가 결과 공시에서 자세한 이사회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및 근거 등 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국내 5대 지주의 이사회 평가는 자체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는 대부분 최고 수준, 매우 우수 등으로 관대화 경향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음
  -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이사회 평가 기준에서 이사회 구성에 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이사회 승계계획의 체계화 및 공시에 따른 예상 효과는 아래와 같음
  -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이사회 승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사회 승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승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교체할 수 있음
  - 갑작스러운 이사회 내 리더십 교체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회사의 전략과 이사회 구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회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사회 승계는 최고경영자 승계만큼 기업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에 준하는 이사회 승계계획을 수립한 후 명문화하여 이사회 승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시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지급 현황 및 향후 과제

권세현\*

- ▶ 금융위원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깜깜이 투자'가 해소될 가능성이 열림
- ▶ 이번 개선과정을 국내 증시의 재평가로 이어질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며, 배당절차 개선과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분기배당 관례화·주주환원에 대한 시각 전환·배당 관련 지수 개발·홈페이지 공시 개선

## 조사 목적 및 배경

-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지급 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고, **분기배당 관례화·배당 관련 신규 지수 개발·배당 관련 공시 개선 등** 국내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sup>1)</sup>에 따라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그간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깜깜이 투자'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선과정은 국내 증시의 재평가로 이어질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함.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가치·주주환원 수준 제고를 위한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해외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1. 현금배당 지급 현황

- 현금배당 지급기업 수와 비율
  - (지급기업) 2023년 국내 상장기업 2,492사 중 현금배당 지급기업은 1,174사(유가증권 562사, 코스닥 612사)로, 배당 지급기업 수는 전년대비 23사, 배당 지급기업 비율은 전년대비 1%p 증가함(46.2%→47.1%)
  - (실적 및 배당) 2023년 국내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약 80조원(-50%, yoy), 현금배당총액은 약 43조원(+4%, yoy)으로 조사됨.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으나 기업이 전년과 유사한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justin11@cgs.or.kr

1)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pc010101/79358?srchCgry=&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현금배당 수준을 유지하여 배당성향 53%를 시현했으며(+28%p, yoy),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32.3%로 집계됨

- 현금배당 지급기업 수와 배당총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이 주주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분기배당) 분기배당 기업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19년 8사→'23년 17사), 배당 지급기업 중 1% 수준으로 극히 드물

〈표 1〉 현금배당 지급기업 수와 지급규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지급 기업	대상기업	2,492사*					-
	지급기업	1,076	1,080	1,140	1,151	1,174	
	유가증권	532	530	557	559	562	
	코스닥	544	550	583	592	612	
	지급비율	43.2	43.3	45.7	46.2	47.1	
실적 및 배당	당기순이익	96,462	106,784	236,837	161,866	80,697	32.3(평균)
	증감률	-44.1	10.7	121.8	-31.7	-50.1	
	배당총액	30,887	35,139	41,428	41,394	43,180	
	증감률	-0.5	13.8	17.9	-0.1	4.3	
	배당성향	32.0	32.9	17.5	25.6	53.5	
배당 주기	결산배당	1,029	1,036	1,079	1,079	1,085	-
	중간배당	39	38	50	59	72	
	분기배당	8	6	11	13	17	

출처: KRX정보데이터시스템(배당종목 현황), DataGuide, 한국ESG기준원

단위: 개(사), %, 십억원

주석: 1) 조사 편의를 위해 KRX정보데이터시스템의 2,492개사를 대상으로 함 (스팩, 코넥스 시장 제외)

2) 당기순이익(연결)은 DataGuide, 배당총액은 KRX정보데이터시스템 기준

3) 지급비율=지급기업/대상기업, 배당성향=배당총액/당기순이익

## 2. 해외 시장과의 비교 및 향후 과제

### □ 분기배당 관례화

- 국내 분기배당 기업은 배당 지급기업의 약 1%로, 이는 분기배당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미국 시장과 대조적임. 금융위원회는 국내 배당 투자가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언급함.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1위가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를 추종하는 ETF였다는 점은 실제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찾는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시사함. 그러나 국내 배당투자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분기배당 지급기업 수가 많아져야

할 것임

-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은 배당정책 공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국내 시장은 깜깜이 투자,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대리인 문제 등으로 배당정책 명문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최근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정책<sup>2)</sup>을 명문화하여 공시하고 있음. 반면, 미국 주요 기업은 국내처럼 배당정책을 명시적으로 공시하지 않음에도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옴
-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기배당은 기업 입장에서 ❶**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책임을 줄이고** ❷**이사회가 배당 수준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미국 시장의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기업의 일관된 배당 지급 패턴이 (장기간의) 배당 히스토리에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하는데, 국내에서도 분기배당이 관례화되면 기업의 배당 지급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는 투자자가 기업의 배당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
  - 구체적으로, 분기배당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신호를 더 높은 빈도로 제공하며, 투자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러한 신뢰는 배당정책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 분기별 실적발표와 배당 발표가 연계되면, 실적과 배당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지므로 이사회가 경영상황에 맞는 유연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투자자의 반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표 2〉 배당ETF 순매수 규모

구분	해외ETF		국내ETF	
	1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6,600억	PLUS 고배당주
2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1,219억	KODEX 한국부동산인프라	534억
3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1,017억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272억
4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	292억	KOSEF 고배당	-11억
5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214억	KODEX 은행	-288억

출처: 서울경제, "믿을 건 미장뿐"...주식도 배당도美好 향하는 투자자들, 2024.8.25.

2) 〈표3〉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배당지표, 배당성향, 자사주 매입액, 매입기간 등을 사전에 명시하는 경우를 의미함

〈표 3〉 삼성전자와 KB금융 분기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주주환원 정책 관련)

삼성전자 2023년 4분기 컨퍼런스콜	KB금융 2024년 3분기 컨퍼런스콜
<p>“다음으로, 주주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b>주당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b>의 기말배당을 결의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상 연간 배당금액에 따라 4분기 배당총액은 2.45조원이며, 3월 정기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p> <p>금번 기말배당을 마지막으로 <b>3년간 Free Cash Flow의 50%를 환원</b>하고 <b>매년 9.8조원을 배당</b>하는 2021~2023년 3개년 주주환원정책이 종료됩니다.”</p> <div data-bbox="235 769 771 1021"> <p>FY 2024-2026</p> <p>주주환원 정책 (FY 2024-20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월에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주가지 제고 및 경영 환경, 투자 전략, 재무구조 등 다각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li> <li>3년간 발생하는 Free Cash Flow의 50%를 환원하고, 연간 9.8조원의 정규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li> <li>매년 잔여재원을 신중하여 충분한 잔여재원이 발생될 경우 배당 외에 일부 조기 추가 환원 검토 프로세스도 유지할 계획입니다.</li> <li>3개년 주주환원 정책 대상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M&amp;A 추진, 현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발표 및 시행을 검토할 것입니다.</li> </ul> </div>	<p>“앞으로 KB는 CET1비율과 연계하여 일부 매니지먼트 버퍼를 제외한 잉여자본을 주주님께 환원할 것입니다. (생략) KB의 <b>CET1비율이 높을수록</b> 주주님들께서는 <b>다음 해에 더 많은 주주환원</b>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b>CET1비율로 주주환원 규모도 예상</b>하실 수 있습니다.</p> <p>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9월말 기준, 전분기 대비 25bp 상승한 13.8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4분기에는 환율변동, 자사주매입, 계절적 이익감소 등으로 인해 다소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연중 CET1 비율을 13.5% 이상 수준에서 견고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p> <p>이에, 금일 당사 이사회는 <b>주당 795원의 분기현금배당과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의</b>하였습니다.” (생략)</p>

출처: 각 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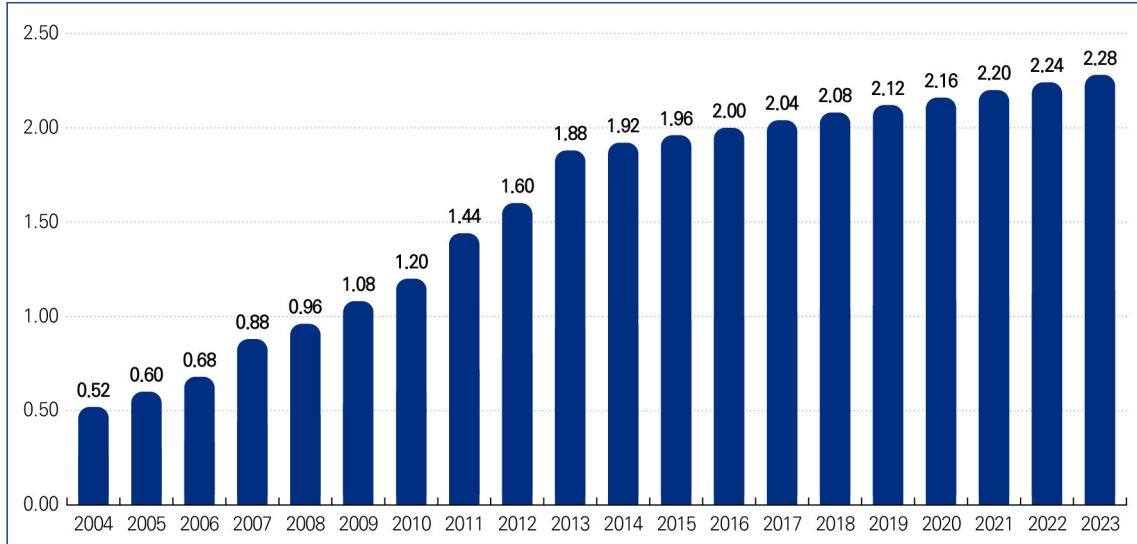
□ 장기 주주환원으로의 시각 전환

- 그간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수준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평가되었음. 그러나 **배당수익률보다는 배당 지급의 연속성과 인상 여부에 주목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함**<sup>3)</sup>. 미국 시장에서 25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증가시킨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sup>4)</sup>
-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는 ‘**배당왕족(Dividend Monarch)**’ 또는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으로 불리는 **해외 기업의 배당 히스토리를 참고할 수 있음**. 이들은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배당하기보다는, **매년 소폭씩 오랜 기간 배당금을 인상**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예를 들어, 월마트는 주당배당금을 약 0.04달러씩 10년간 인상해 2014년 1.88달러에서 2023년 2.28달러를 지급하였음. 월마트의 배당성향(약30%)과 배당수익률(약1~3%)은 한국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이러한 주주환원 수준을 낮게 평가할 투자자는 드물. 분기배당 시행과 더불어 국내 기업도 1원, 10원 단위의 인상 폭을 오랜 기간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판단함
- 주주 및 투자자도 **기업의 주주환원 ↑ → 투자자의 (배당)투자 ↑ →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국내 증시의 선순환을 위해, 단기간의 높은 주주환원 수준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3) <그림2> 배당주로 널리 알려진 기업들도 얼마나 오랜 기간 연속해서 배당금을 지급했는지를 강조함

4) 출처: <https://www.spglobal.com/spdji/kr/research/article/a-fundamental-look-at-sp-500-dividend-aristocr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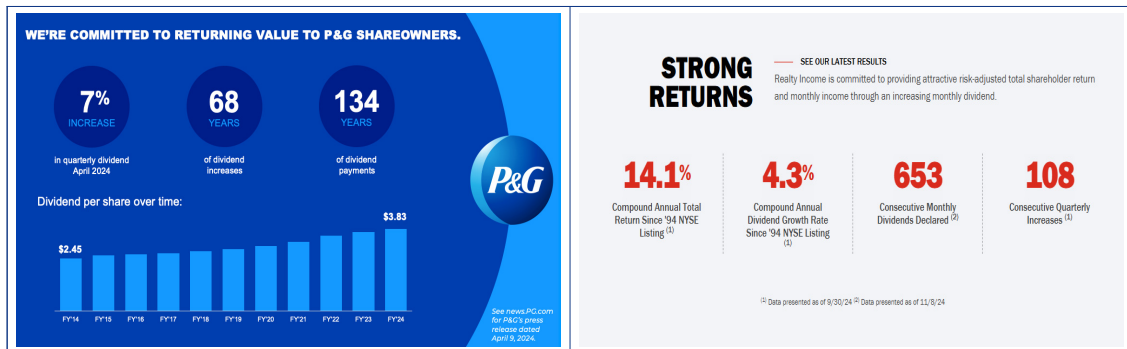
〈그림 1〉 월마트(WMT) 주당배당금 추이



출처: 각 사 홈페이지

주식: 2004년 0.52달러(0.13달러, 분기) → 2023년 2.28달러(0.57달러, 분기)

〈그림 2〉 P&G(PG)와 리얼티인컴(O) 홈페이지



출처: 각 사 홈페이지

주식: P&G는 68년 배당 인상, 134년 배당 지급. 리얼티인컴은 653개월 연속 배당 지급, 108분기 연속 배당 인상

□ 배당 관련 지수 개발

- 앞서 언급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지수 편입 요건에 배당금 연속 지급기간과 배당금 연속 인상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컨대, 배당금 5년 연속 지급 또는 5년 연속 인상 등을 편입 조건으로 하는 지수를 도입할 수 있음 (〈표4〉 참고)
- 〈표5〉와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내 배당 관련 지수는 주로 배당수익률을 지수 편입 요건으로 삼는 반면, 해외 배당 관련 지수는 배당지급 기간과 인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배당수익률 중심의 기준은 기업의 안정적인 배당정책이나 성장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단기 배당수익률에 기반해 기업을 평가·투자하게 되므로 배당락일 전후로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음

- 국내 지수가 배당금 지급기간과 연속 인상 여부를 반영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❶지수 편입을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배당 지급 및 인상, ❷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❸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지수 투자에 따른 주가 상승, ❹장기투자 기조(배당 또는 저변동성 추구) 확산에 따른 주가 변동성 감소
- 분기배당 관례화와 더불어 이러한 지수 개발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4〉 국내 5개년 연속 배당 인상 기업

구분	소목차	시장	주당배당금(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	CJ	유가	1,850	2,000	2,300	2,500	3,000
2	JB금융지주	유가	300	374	599	835	855
3	LG	유가	2,200	2,500	2,800	3,000	3,100
4	LIG넥스원	유가	600	900	1,200	1,500	1,950
5	NICE	유가	230	270	375	410	451
6	NICE평가정보	유가	230	275	330	370	410
7	경동나비엔	유가	300	350	450	500	550
8	고려신용정보	코스닥	250	275	300	330	380
9	넥센	유가	80	85	100	110	125
10	세아제강	유가	2,000	2,500	3,500	6,000	8,000
11	스틱인베스트먼트	유가	80	90	150	200	250
12	영원무역홀딩스	유가	1,000	1,200	2,000	3,050	3,970
13	에스코홀딩스	유가	1,750	2,000	2,250	2,500	8,750
14	클래시스	코스닥	46	60	66	116	200
15	하이트진로홀딩스	유가	350	400	450	500	550
16	한국앤컴퍼니	유가	350	500	600	650	700
17	한국컴퓨터	유가	130	150	180	250	300
1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유가	550	650	700	800	1,300
19	한솔로지스틱스	유가	40	50	60	70	100
20	현대홈쇼핑	유가	2,000	2,200	2,400	2,600	2,800
21	흥국	코스닥	150	180	200	220	240

출처: KRX정보데이터시스템, 한국ESG기준원

〈표 5〉 국내 배당 관련 주요 지수

구분	지수명	(연속) 지급기간	인상 여부
1	KRX 고배당 50	3년	연속 지급
2	코스피 고배당 50	3년	연속 지급
3	코스피 배당성장 50	7년	연속 지급
4	KRX-IHS Markit 코스피 200 예측 배당성장 30	2년	연속 지급
5	KRX-IHS Markit 코스피 200 예측 고배당 30	-	인상 예상
6	MKF Wealth 고배당 20	4년	연속 지급
7	FnGuide 고배당주	-	(배당수익률)
8	FnGuide 고배당저변동 50	-	(배당수익률)
9	FnGuide 고배당 채권혼합	-	(배당수익률)
10	FnGuide SLV 배당주형	-	(배당수익률)
11	FnGuide 고배당 Plus	-	(배당수익률)
12	FnGuide 고배당포커스	-	(배당수익률)
13	FnGuide KQ고배당포커스	-	(배당수익률)
14	FnGuide 중소형 고배당포커스	-	(배당수익률)
15	FnGuide 고배당 알파 지수	3년	연속 지급
16	FnGuide SLV 배당가치형 지수	-	(배당수익률)
17	FnGuide 리츠부동산인프라 지수	-	(배당수익률)
18	FnGuide 코리아 배당알파15 지수	3년	연속 지급
19	MKF 배당귀족 지수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20	FnGuide 은행 고배당 플러스 TOP10 지수	3년	연속 지급
21	FnGuide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지수	-	(배당수익률)

출처: KRX, FnGuide, 한국ESG기준원

주석: 주로 지급기간 관련 조건을 기재. 지수별로 배당성장성, 재무기준, 유동성 등 별도 기준 존재

- 1) 연속 지급: 배당금 인상·삭감과 관계없이 지급만 하면 되는 경우
- 2) 연속 인상: 배당금을 매년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
- 3) 연속 인상 또는 유지: 배당금을 매년 인상하거나 최소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표 6〉 S&P Global 배당 관련 주요 지수

구분	지수명	지급기간	인상 여부
1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	25년	연속 인상
2	S&P 500 Dividend Aristocrats Monthly Index	25년	연속 인상
3	S&P Emerging Markets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	5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4	S&P Europe 350 Dividend Aristocrats Index	10년	연속 인상
5	S&P Global Dividend Aristocrats Index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6	S&P Developed Dividend Aristocrats Index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7	S&P International Dividend Aristocrats Index	25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8	S&P Global Dividend Aristocrats Quality Income Index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9	S&P Developed Ex-Korea Dividend Aristocrats Quality Income Index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10	S&P International Developed Ex-North America & Korea Dividend Aristocrats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구분	지수명	지급기간	인상 여부
11	S&P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	20년	연속 인상
12	S&P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FMC Weighted Index	20년	연속 인상
13	S&P Dividend Monarchs Index	50년	연속 인상
14	S&P Sector-Neutral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	7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15	S&P 500 Sector-Neutral Dividend Aristocrats	15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16	S&P MidCap 400 Dividend Aristocrats Index	15년	연속 인상
17	S&P Pan Asia Dividend Aristocrats Index	7년	연속 인상
18	S&P/JPX Dividend Aristocrats Index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19	S&P Technology Dividend Aristocrats Index	7년	연속 인상
20	S&P UK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	7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21	S&P Euro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	10년	연속 인상 또는 유지
22	Dow Jones Asia Select Dividend 30 Index	3년	연속 지급
23	Dow Jones Asia/Pacific Select Dividend 50 Index	3년	연속 지급
24	Dow Jones Asia Select Dividend 100 Index	3년	연속 지급
25	Dow Jones Emerging Markets Select Dividend Index	3년	연속 지급
26	Dow Jones EPAC Select Dividend Index	3년	연속 지급
27	Dow Jones Global Select Dividend Index	5년	연속 지급
28	Dow Jones Global Select Dividend Composite Index	3년	연속 지급
29	Dow Jones International Dividend 100 Index	10년	연속 지급
30	Dow Jones Canada Select Dividend Index	5년	연속 지급
31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	10년	연속 지급
32	Dow Jones U.S. Dividend 30 Index	10년	연속 지급
33	Dow Jones U.S. Select Dividend Index	5년	연속 지급
34	Dow Jones Taiwan High Quality Dividend 30 Index	5년	연속 지급
35	Dow Jones Taiwan Technology Dividend 30 Index	5년	연속 지급
36	Dow Jones Japan Dividend 100 Index	10년	연속 지급
37	Dow Jones Islamic Market Global Select Dividend Index	5년	연속 지급

출처: S&P Dividend Aristocrats Indices Methodology, Dow Jones Dividend Indices Methodology, 한국ESG기준원

#### □ 기업 홈페이지 배당 공시 수준 개선

- 마지막으로 기업 홈페이지 공시 수준도 개선되어야 함. 해외 주요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업 홈페이지의 Investor Relation 메뉴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이러한 접근성이 부족함<sup>5)</sup>. 여기에는 배당에 관한 정보도 포함됨. 2024년 한국ESG기준원 배당 관련 홈페이지 공시 문항의 득점률은 약 40%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아래에서는 홈페이지 공시 개선을 위해 관련 모범기준과 예시를 공유하고자 함
  - <그림3> 국내의 대표적인 배당 공시 사례로는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들 수 있음. 기업 홈페이지에서 실제 주주들이 받게 될 주당배당금 포함, 배당지표, 당기순이익, 배당총액,

5) 2017~2019년 국내 신규 상장사의 30%가 홈페이지 내 IR메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공시하여 배당투자에게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4> 향후 분기배당이 관례화될 경우 **배당기준일, 배당주기, 배당지급일** 등도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될 것임. 결산 배당이 주를 이루는 한국 증시에서는 배당기준일이 대부분 12월 말로 고정되어 있어 배당기준일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음. 그러나 법 개정 후 기업마다 다른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게 된다면, 기업별로 배당 관련 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카콜라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
- <그림5> 전반적인 기업 홈페이지 모범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를 붙임

**<표 7> 한국ESG기준원 ESG모범기준과 한국IR협의회 IR모범기준**

2.1	기업은 주주에게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b>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b> 하여야 하며,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b>공평하게 제공</b> 하여야 한다.
2.2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b>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b> 한다.
2.3	기업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2.5	기업은 정보 공개 내용을 <b>이해하기 쉽게</b>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b>이용하기 용이하도록</b> 노력하여야 한다.
3.6.1	<b>IR전용 홈페이지</b> 를 구축하거나 <b>회사 홈페이지 내에 IR계정</b> 을 둔다.
3.6.2	홈페이지에 공시 추가 재무정보 등의 자료를 <b>3년치 이상 게재</b> 하여 투자관계자들이 과거 자료와 비교·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1회 이상 갱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재무관련 정보는 <b>적어도 분기 1회 이상</b>, 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b>기타 중요 정보는 발생 시마다 갱신</b>하도록 하여야 함</li> </ul>
3.6.3	기업설명회 등에서 제공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담당자 연락처 또는 메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자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출처: 한국ESG기준원「ESG모범기준」, 한국IR협의회「IR모범기준」

**<그림 3> 삼성전자 홈페이지 배당 관련 공시**

배당 내역 (최근 5사업년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당기순이익		215,051	260,908	392,438	547,300	144,734
배당성향		44.7%	78.0%	25.0%	17.9%	67.8%
배당수익률	보통주	2.6%	4.0%	1.8%	2.5%	1.9%
	우선주	3.1%	4.2%	2.0%	2.7%	2.4%
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1,416	2,994	1,444	1,444	1,444
	우선주	1,417	2,995	1,445	1,445	1,445
배당총액	보통주	84,532	178,735	86,204	86,204	86,204
	우선주	11,660	24,645	11,891	11,891	11,891
	소계	96,192	203,381	98,094	98,094	98,094

출처: <https://www.samsung.com/sec/ir/stock-information/shareholder-return/>

〈그림 4〉 코카콜라(KO) 홈페이지 배당 관련 공시

Upcoming Dividends					
There are no future dividends presently declared for KO as of Dec 8th, 2024. The declaration and payment of dividends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Company.					
Dividend History					
Ex-Div Date	Amount	Frequency	Payment	Record	Announced
2024-11-29	0.485 USD	Quarterly	2024-12-16	2024-11-29	2024-10-17
2024-09-13	0.485 USD	Quarterly	2024-10-01	2024-09-13	2024-07-29
2024-06-14	0.485 USD	Quarterly	2024-07-01	2024-06-14	2024-05-02
2024-03-14	0.485 USD	Quarterly	2024-04-01	2024-03-15	2024-02-15
2023-11-30	0.46 USD	Quarterly	2023-12-15	2023-12-01	2023-10-19
2023-09-14	0.46 USD	Quarterly	2023-10-02	2023-09-15	2023-07-19
2023-06-15	0.46 USD	Quarterly	2023-07-03	2023-06-16	2023-04-26
2023-03-16	0.46 USD	Quarterly	2023-04-03	2023-03-17	2023-02-16
2022-11-30	0.44 USD	Quarterly	2022-12-15	2022-12-01	2022-10-20
2022-09-15	0.44 USD	Quarterly	2022-10-03	2022-09-16	2022-07-21

출처: <https://investors.coca-colacompany.com/stock-information/dividends>

주석: Ex-Div Date 또는 Record Date(배당기준일), Frequency(배당주기), Payment(배당지급일), Announced(배당액확정일)

〈그림 5〉 마이크로소프트(MSFT) 홈페이지

### Past Events

- December 3, 2024 12:00 PM - PT

**Wells Fargo TMT Summit**

Mat McBride, CVP, Margin Strategy and Investment Optimization

[Webcast](#) [Transcript](#)
- December 3, 2024 12:55 PM - MT

**UBS Global Technology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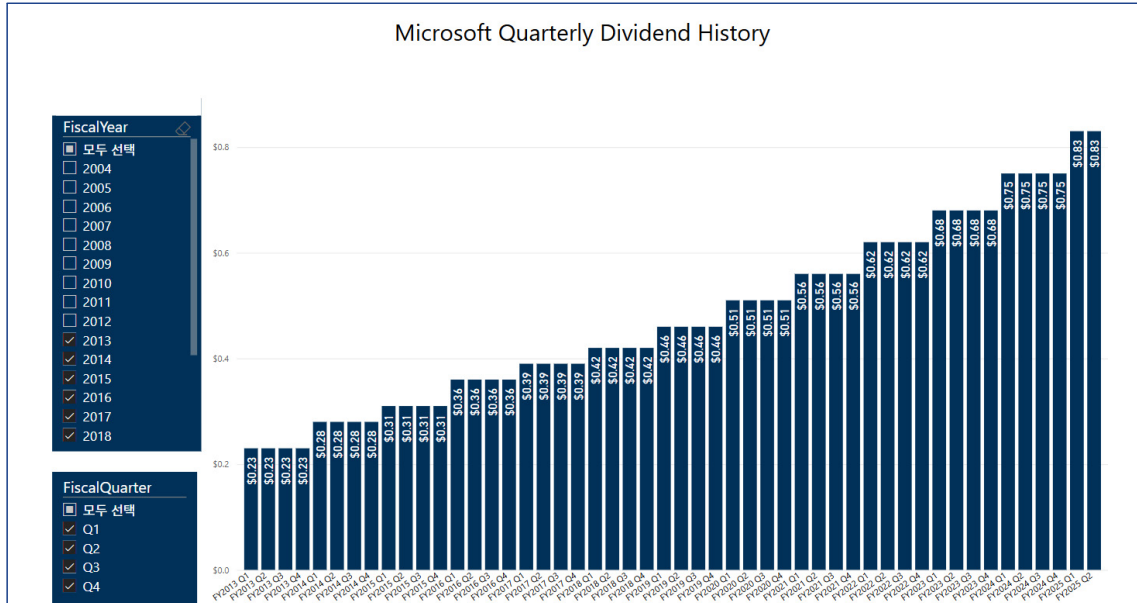
Judson Althoff, EVP, Chief Commercial Officer

[Webcast](#) [Transcript](#)
- October 30, 2024 2:30 PM - PT

**Microsoft Fiscal Year 2025 First Quarter Earnings Conference Call**

Satya Nadella, Chairman and CEO and Amy Hood, EVP & CFO

[Webcast](#) [Event Website](#) [PowerPoint](#) [Transcript](#)



출처: <https://www.microsoft.com/en-us/Investor/dividends-and-stock-history>

- 주식: 1)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는 기업 보도자료, 기업설명회 자료, 재무제표, SEC Filings, Dividend history 등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또한, 과거 이벤트의 Webcast 와 Transcript도 제공하여 투자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지원
- 2) Dividend history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연도의 데이터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음. 주당배당금 지급 내역은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명문화된 배당정책 공시 없이도 다음 분기 또는 다음 해의 주당배당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결론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지급 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고, 해외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현금배당 지급 현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 상장기업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배당성향을 유지하며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음. 그러나 배당 지급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배당 관례화, 배당 관련 지수 개발, 홈페이지 공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노력은 국내 자본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당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또 궁극적으로는 주주-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역할 할 것임

# 국내 기업 기후정보 공개 현황 분석(1)\*

## -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2호를 중심으로

ESG 평가본부 환경파트\*\*\*

- ▶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추세에 대응을 위해 국내에서도 지난 4월, IFRS 기준을 차용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SB) 공개 초안이 발표됨
- ▶ IFRS와 달리 KSSB는 기후 관련 정보 공시만 우선 의무화 할 예정으로(시기 미정), 이와 관련된 KSSB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을 살펴봄
- ▶ 이 중 핵심 공시 요구사항은 ①온실가스 Scope 1-3 배출량, ②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기업의 기후 회복력 평가, ③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식별, ④각 요인별 기업에 미치는 재무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⑤내부탄소가격이며,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후정보 공시 수준을 파악함

### 서론

#### □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KSSB) 도입 배경

-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가 강화되고 있음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11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2023년 6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기준을 발표함
  - EU는 2023년 1월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발표하고, CSRD의 위임 입법인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를 채택하여 세부적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 본고는 파트 1과 2로 나누어 발간되었으며, 파트 2의 내용은 분석 3-4(물리적/전환적 위험 및 기회 요인 식별과 재무 영향), 분석 5(내부탄소 가격제)와 결론을 담을 예정으로 KCGS 리포트 15권 1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각 시나리오 방법론별 종류 및 세부 내용은 <별첨 4> 참고

\*\*\*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본부 환경파트 이예원 선임연구원, yewon.lee@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본부 환경파트 원소정 연구원, sojung@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본부 환경파트 이예원 연구원, yeah1.lee@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본부 환경파트 강혜민 연구원, hmkang@cgs.or.kr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2024년 3월에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이 통과되어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가 확정됨
-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2022년 12월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2024년 4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함
- 지속가능성 관련 모든 정보의 의무 공시를 요구하는 IFRS와 달리 KSSB는 기후 관련 공시만 우선 의무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의무화 시기 미정)
- 제1호(일반사항) 및 제2호는(기후 관련 공시 사항) IFRS 기준을 따르나 제101호는(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우리나라만 채택한 독자적인 기준으로 기존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유도해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표 1〉 KSSB 공시기준 구성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IFRS 기준
제2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 사항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국내 추가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KSSB 제2호(기후 관련 공시 사항)와 타 기준과의 비교

- (IFRS와 비교) KSSB는 IFRS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였지만, 일부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은 국내 기업의 수준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함

〈표 2〉 KSSB 공개 초안과 IFRS 공시기준 비교<sup>1)</sup>

구분	KSSB 공개 초안(제2호)	IFRS 기준(IFRS S2)
미공시 사실 기재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미공시할 시, 그 사실 및 근거 기술	-
Scope 3 배출량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추정치 사용 가능) (단,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결정)	적용 첫째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면제(추정치 사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및 공시 세분화	GHG 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그 측정 방식의 사용도 허용 (단, 측정 방법별 배출량 정보 세분화 공시)	GHG 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그 측정 방식의 사용도 허용
내부 탄소 가격	내부 탄소 가격 관련 정보 중 탄소 가격의 적용 여부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공시 (톤당 가격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	내부 탄소 가격의 적용 여부와 방법, 톤당 가격 공시
산업기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IFRS S2 산업기반 지침 참고 가능)	산업기반 지표 공시 요구
단·중·장기의 정의	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 (단, 다른 정의 사용 가능)	단·중·장기를 정의하지 않음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1)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2024.4.30,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 (KCGS 모범 기준과의 비교) KCGS 환경 모범 기준은 IFRS, TCFD, GHG Protocol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므로 KSSB와 대조 시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함

〈표 3〉 KSSB 공개 초안과 KCGS 환경 모범 기준 비교

KSSB 공개 초안(제2호)	KCGS 환경 모범 기준(2021년 8월 개정)
(핵심 요소 1)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경영진의 역할 등	(환경 모범 기준 2) 리더십과 거버넌스 리더십/거버넌스,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내재화
(핵심 요소 2) 전략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의사결정, 재무 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 기후 회복력(시나리오 분석)	
(핵심 요소 3)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 평가 절차 등	(환경 모범 기준 3) 위험관리 환경 위험·기회요인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위험관리 체계
(핵심 요소 4) 지표 및 목표 지표(산업 전반 및 기반), 기후 관련 목표	(환경 모범 기준 4) 운영 및 성과 기후변화 등 환경경영에 대한 지표 및 성과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한국ESG기준원

## 국내 기업 기후정보 공개 현황 분석

### □ 분석 개괄

- (분석 목적) KSSB 기후 공시 우선 의무화에 대비, 국내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 현황 파악
- (분석 대상) 24년 KCGS 환경평가 대상 기업 942개 사
  - 조사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자산 규모, 시장, 거래제 대상 여부별로 분석 대상을 분류하고, 업종은 KCGS 환경평가 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총 20개<sup>2)</sup> 업종으로 구분함

〈표 4〉 자산 규모별, 시장별, 거래제 적용 여부별 분석 대상

(단위: 개 사, %)

전체	자산 규모별 <sup>3)</sup>			시장별		거래제 <sup>4)</sup> 적용	
	5천억 미만	5천억 이상	2조 이상	유가증권	코스닥	대상	비대상
942	479	276	187	738	204	275	667
	51%	29%	20%	78%	22%	29%	71%

〈표 5〉 업종별 분석 대상 구분

(단위: 개 사)

제조업	철강/비철	유리/시멘트	기계/금속가공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운송장비	섬유/의복	종이/목재	기타제조	음식료품	의약품
618	49	26	69	104	111	60	22	21	36	45	75
비제조업	건설	전기/가스-발전	전기/가스-배관공급	운수	유통	금융	통신/정보서비스	미디어/엔터·게임	기타 서비스		
324	33	5	12	24	61	54	15	34	86		

2) KCGS 환경 평가 산업분류체계 총 21개 중 지주업을 제외한 20개 산업으로 분석 수행  
 3) 23년 사업보고서 기말 총 자산액 기준  
 4) 국내법 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 대상 기업

- (분석 기간) 최근 3개년(2021-2023) 내 공개된 기업의 실적
- (분석 방법) 주요 ESG 정보 공개 채널<sup>5)</sup>을 통한 조사 데이터 집계
- (분석 항목) KSSB 제2호에서 5개 핵심 공시사항 선정, 관련하여 기업이 공개한 정보 분석

〈표 6〉 핵심 공시사항 및 세부 분석 항목

구분		세부 분석 항목
분석 1	온실가스 총배출량 공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ope 1-3 배출량 공개 현황</li> <li>•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량 공개 현황</li> <li>• Scope 1+2, Scope 3 배출량 비교</li> <li>• 제3자 검증 현황</li> </ul>
분석 2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자산 규모별, 시장별 공개 현황</li> <li>• 시나리오 방법론별 활용도 분석</li> <li>• 공시 우수사례</li> </ul>
분석 3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 및 재무 영향 공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 공개 현황</li> <li>• 각 위험/기회요인별 재무 영향 공개 현황</li> </ul>
분석 4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 및 요인별 재무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의 세부 내용</li> <li>•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별 재무 영향도</li> </ul>
분석 5	내부탄소가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 현황 및 공시 우수사례</li> </ul>

## 분석 1. 온실가스 총배출량 공개 현황

### □ 공시 요구사항

- KSSB 공시기준은 기후 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보고 기간 내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보고 방법에 있어 총배출량을 Scope 1, Scope 2, Scope 3로 세분화하여 이산화탄소환산톤(tCO<sub>2</sub>e)으로 공시하고(문단 29), 해당 지표의 제3자 검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함(문단 34 및 부록 지침 B53, 54)

### □ 조사 데이터 설명

- 최근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제3자 검증 내역
  - 최근 3개년(2021-2023)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채널을 통하여 각 Scope 1, 2, 3별로 산출된 값이 확인 가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했다고 판단함
  -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개한 기업 중 가장 최근 연도(2023년)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 내역이 확인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을 수행했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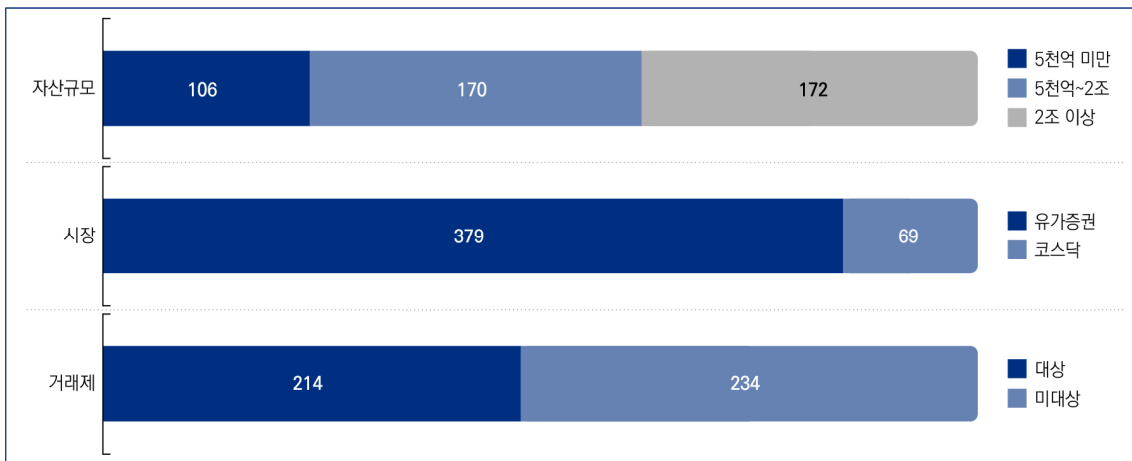
5)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

□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개 현황

- 전체 분석 대상 기업 942개 사 중 최근 3개년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각각 구분하여 공개한 기업은 총 448개 사(48%)임
- 자산 규모별, 시장별, 거래제 적용 여부별 공개 현황
  - (자산 규모별 현황) 자산 규모 2조 이상 기업 187개 사 중 172개 사(92%)가 Scope 1, 2 배출량을 공개했으며,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2조 미만 기업은 276개 사 중 170개 사(62%)가, 5천억 미만 기업은 479개 사 중 106개 사(22%)가 공개하여 자산 규모가 큰 기업그룹에서 높은 공개율을 보임
  - (시장별 현황) 유가증권 기업 738개 사 중 379개 사(51%)가 배출량을 공개한 반면, 코스닥 기업은 204개 사 중 69개 사(34%)가 공개하여 코스닥 기업에 대한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교육 등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거래제 적용 여부별 현황) 전체 942개 사 중 275개 사(29%)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 중 214개 사(78%)가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어 높은 공개율을 보임

〈그림 1〉 최근 3개년 Scope 1, 2 배출량 공개 현황

(단위: 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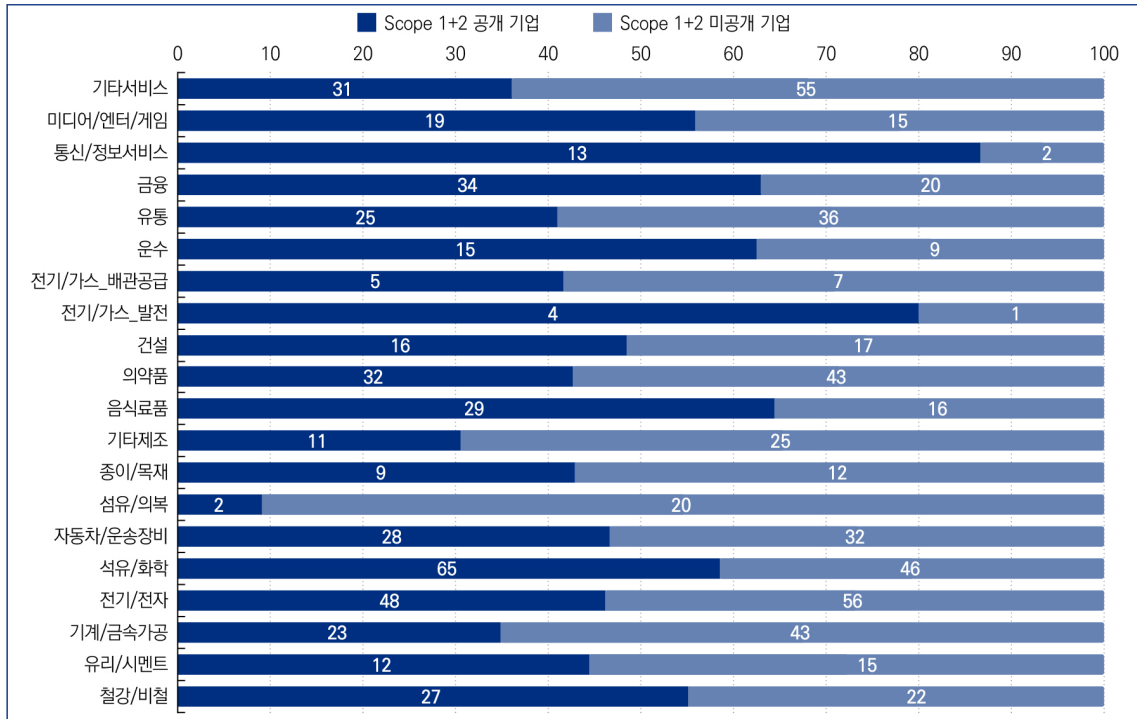
○ 업종별 공개 현황

- 제조업종 618개 사 중 286개 사(46%)가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공개하고, 비제조업종 324개 사 중 162개 사(50%)가 공개하여 제조업-비제조업 간 공개율 차이가 미미함
- 업종별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공개 현황은 〈그림 2〉와 같으며 전체 20개 업종 중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이는 업종은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전체 15개 사 중 13개

사(87%)가 배출량을 공개한 한편 '섬유 및 의복업'은 22개 사 중 2개 사(9%)만 공개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2〉 최근 3개년 업종별 Scope 1, 2 배출량 공개 현황

(단위: 개 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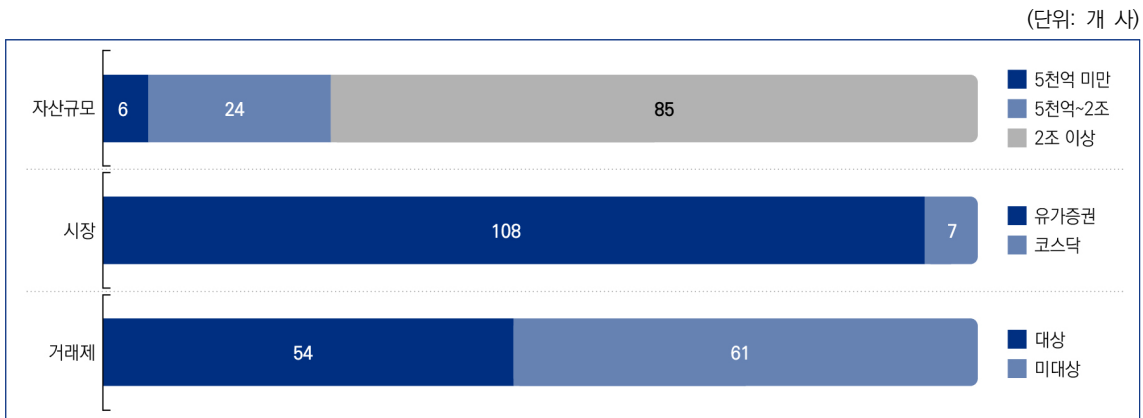
□ Scope 3 배출량 공개 현황

- 전체 조사 대상 기업 942개 사 중 최근 3개년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한 기업은 총 115개 사(12%)로 Scope 1, 2 배출량 공개 기업의 약 4분의 1에 불과함. 특히 자산규모가 5천억 미만인 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공개율이 현저히 낮아, 공시 의무화 전 대응 역량 확보가 필요함
- 자산 규모, 시장, 거래제 여부별 공개 현황
  - KSSB는 Scope 3 배출량의 15개의 카테고리 중 기업이 주요하다고 판단한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각 카테고리별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고있으며<sup>6)</sup> 공개 기업 115개 사(12%) 중 10개 사는 카테고리를 분류하지 않고 Scope 3 총 배출량 합계 값만 공개함
  - (자산 규모별 현황) 자산 규모 2조 이상 기업은 187개 사 중 85개 사(45%)가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개율을 보인 한편, 5천억 이상 2조 미만 기업은 276개 사 중 24개 사(9%), 5천억 미만 기업은 479개 사 중 6개 사(1%)가 공개함

6) KSSB S2의 B32~B33

- (시장별 현황) 유가증권 기업은 738개 사 중 108개 사(15%), 코스닥 기업 204개 사 중 7개 사(3%)가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여 코스닥 기업의 공개율이 매우 저조함을 확인함
- (거래제 적용 여부별 현황)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한 115개 사 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 대상 기업 54개 사(47%)가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공개율을 보임

〈그림 3〉 최근 3개년 Scope 3 배출량 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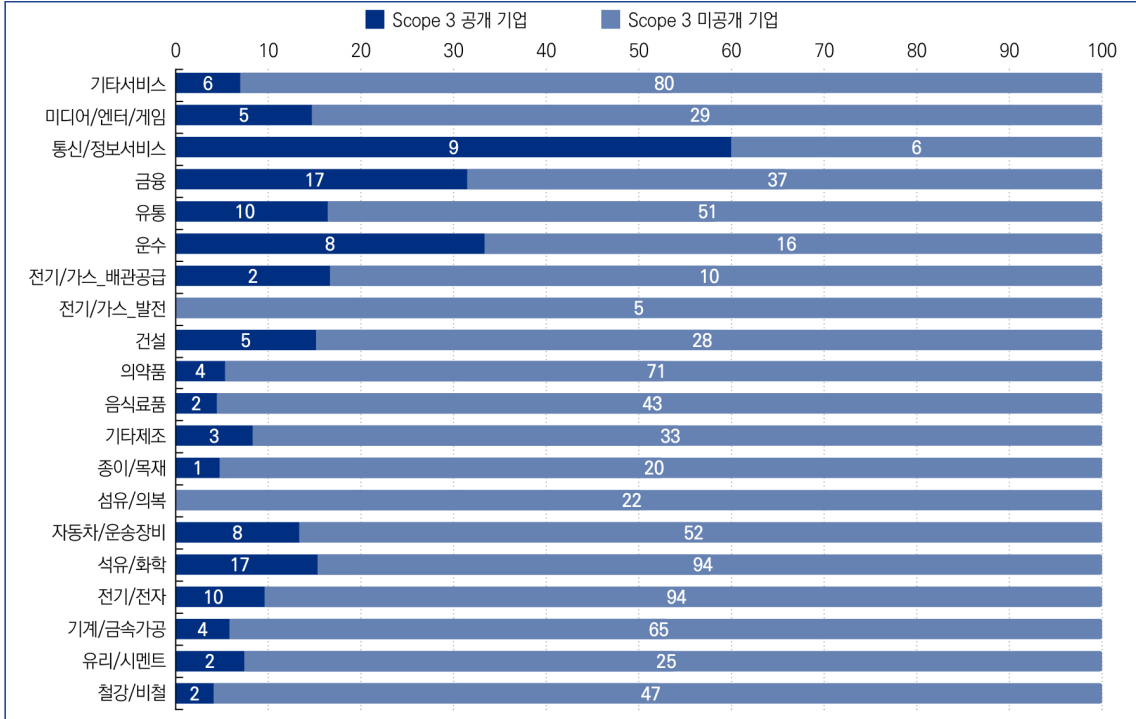


○ 업종별 공개 현황

- 제조업으로 분류된 11개의 업종 내 기업 618개 사 중 53개 사(9%)만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고, 비제조업 324개 사 중에서는 62개 사(19%)가 공개하여 비제조업에서 더 높은 공개율을 보임
- 각 20개 업종 내 Scope 3 배출량 공개 현황 및 비중은 〈그림 4〉와 같으며, 전체 업종 중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총 15개 사 중 9개 사(60%)가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여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임
- 금융업의 경우 총 54개 사 중 17개 사(31%)가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여 전체 업종 중 세 번째로 높은 공개율을 보이는데, 이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 금융배출량 공시 표준과 같이 금융업에게 요구하는 글로벌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으로 파악됨

〈그림 4〉 최근 3개년 업종별 Scope 3 배출량 공개 현황

(단위: 개 사, %)



○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량 공개 현황

- Scope 3 배출량을 카테고리별로 공개한 기업은 총 10개 업종의 95개 사<sup>8)</sup>이며, 업스트림<sup>9)</sup>에 해당하는 카테고리(#1~8)에 대한 전체 95개 사의 평균 공개율은 60%에 이르는 한편, 다운스트림<sup>10)</sup> 카테고리(#9~15)의 평균 공개율은 28%에 불과하여 업스트림 카테고리의 배출량 공개율이 비교적 높은 양상임
- **(제조업)** ‘전기 및 전자업’과 ‘자동차 및 운송장비업’의 경우 15개 카테고리 중 프랜차이즈(#14)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테고리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어 관리하는 공급망의 범위가 타 업종 대비 넓은 것으로 판단됨
- **(비제조업)** 대다수 기업이 업스트림 카테고리 배출량을 중점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종’에서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까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공급망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음

7) GHG Protocol에 따라 Scope 3 카테고리는 총 15개로 구분되며(업스트림 8개, 다운스트림 7개), 카테고리별 세부 내용은 <별첨 5>의 내용 확인  
 8)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한 115개 사 중 카테고리 분류 없이 총 합산 값만 공개한 10개 사 제외, 업종 내 Scope 3 배출량 공개 기업이 5개 사 미만일 경우 특정 기업의 통계적인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종 제외함 결과  
 9)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 또는 재료를 추출하고 제조하는 단계  
 10) 제품이 생산된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사용 및 폐기되는 단계

〈표 7〉 2023년 업종별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량 공개 현황

(단위: %, 개 사)

공급망	구분		제조						비제조			
	카테고리	공개 기업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운송장비	건설	운수	유통	금융	통신/정보 서비스	미디어/엔터/게임	기타 서비스
업 스트림	#1	69%	100%	76%	100%	60%	38%	40%	71%	89%	40%	50%
	#2	57%	70%	59%	88%	20%	25%	50%	59%	89%	40%	33%
	#3	58%	60%	76%	88%	60%	38%	50%	35%	89%	20%	50%
	#4	57%	90%	71%	75%	40%	63%	60%	29%	67%	20%	33%
	#5	73%	100%	82%	100%	60%	25%	60%	76%	89%	60%	33%
	#6	74%	70%	59%	100%	60%	63%	60%	82%	89%	80%	83%
	#7	67%	80%	71%	100%	60%	38%	70%	47%	89%	60%	67%
	#8	28%	60%	18%	50%	0%	25%	30%	18%	44%	0%	33%
다운 스트림	#9	31%	70%	71%	25%	0%	13%	40%	6%	22%	0%	0%
	#10	8%	40%	12%	13%	0%	0%	10%	0%	0%	0%	0%
	#11	37%	40%	35%	88%	60%	0%	30%	29%	67%	0%	17%
	#12	39%	40%	53%	88%	40%	0%	30%	29%	67%	0%	17%
	#13	32%	60%	41%	38%	0%	13%	30%	24%	33%	20%	33%
	#14	13%	0%	12%	0%	0%	0%	50%	6%	44%	0%	0%
	#15	37%	40%	53%	50%	0%	13%	30%	65%	67%	0%	33%
기업 수	95	10	17	8	5	8	10	17	9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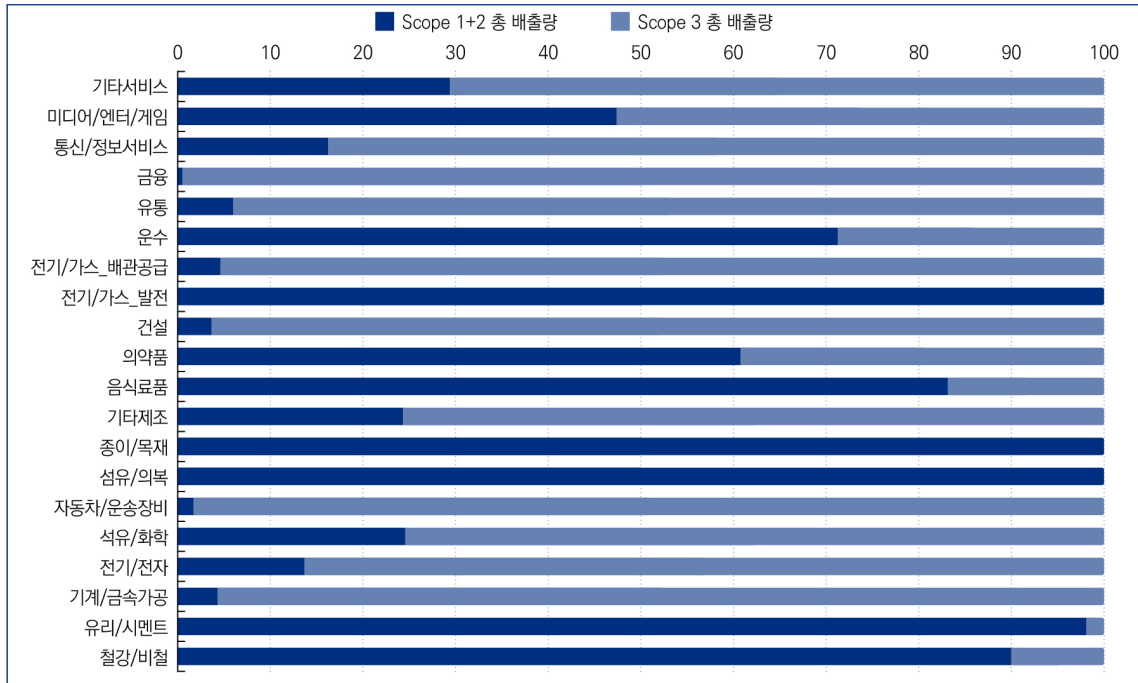
□ 온실가스 Scope 1, 2, 3 배출량 비교 분석

- 2023년 한 해 동안 배출된 Scope 1, 2 배출량 합산 값과 Scope 3 배출량 합산 값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sup>11)</sup>
  - ‘금융업’과 ‘자동차 및 운송장비업’에서 배출량 총합 중 Scope 3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9%와 98%로 가장 높음
  - ‘금융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보다 보유한 자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간접 배출량에 속하는 금융배출량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내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한 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이 산정 및 공개한 카테고리는 판매된 제품의 사용(#11)과 판매된 제품의 수명종료 시 처리(#12)였음
  - 이 외에도 Scope 3의 비중이 배출량 총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 및 금속가공업’, ‘전기/가스\_배관공급업’, ‘유통업’이 있음

11) <별첨 1>, <별첨 2>에서 Scope 1-3 배출량 총합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평균 배출량 확인 가능

〈그림 5〉 2023년 업종별 Scope 1+2 배출량과 Scope 3 배출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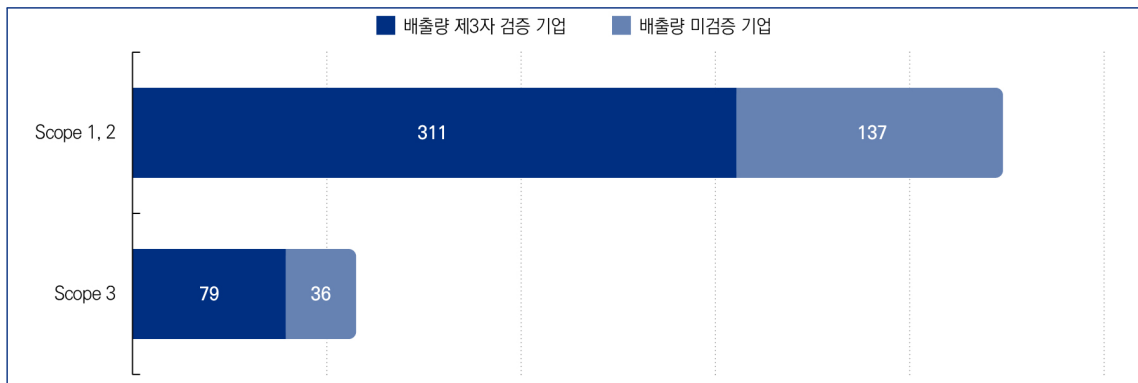


□ 제3자 검증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시 배출량에 대하여 검증 수행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
  -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공개한 448개 사 중 제3자 검증을 수행한 기업은 311개 사(69%)이며,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한 기업은 총 115개 사이며 이 중 제3자 검증을 수행한 기업은 79개 사(69%)임
  -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개 기업 중 검증 비율과 Scope 3 배출량 공개 기업의 검증 비율이 비슷한 수치임을 알 수 있음

〈그림 6〉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현황

(단위: 개 사)



## 분석 2.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현황

### □ 기후 회복력, 기후 시나리오의 정의 및 공시 요구사항

- KSSB 공시기준은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한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즉, **기후 회복력**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문단 22)
  - **기후 시나리오**<sup>12)</sup>는 기후 관련 미래 사건의 잠재적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기업의 기후 회복력 평가 시 사용되는 분석 활동을 의미함
  - KSSB는 기업이 특정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 상황에 상응하는 방법론<sup>13)</sup>을 사용하도록 하고(문단 22 및 부록 지침 B2), 분석 주기에 있어서도 반드시 매년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 자체 전략 계획 주기에 맞춰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도록 함(부록 지침 B18)

###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현황

- 조사 데이터 설명
  - FY(2023년)를 포함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수시로 접근 가능한 공개 채널<sup>14)</su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판단함
  - FY(2023년)를 포함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사실 또는 분석 방법론만 확인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시로 접근 가능한 공개 채널을 통하여 상세한 분석 결과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고 판단함
- 전체 조사 대상 기업 942개 사 중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공개한 기업은 총 85개 사, 시나리오 분석 수행 기업은 총 17개 사로 **전체의 약 11%**에 지나지 않았으며, 시나리오 분석 미수행 기업은 전체의 89%인 840개 사로 **아직 국내 기업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 역량이 미흡함**을 확인함
- 업종별, 자산 규모별, 시장별 공개 현황
  - (**업종별 현황**) 아래 <그림 7>과 같이 KCGS 환경평가 20개 업종 중 시나리오 분석 및 결과 공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총 1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기업이 공개한 업종은 '석유/화학업', '금융업'**으로 확인됨. 이는 해당 업종 내 기업들이 대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정도나 기후 회복력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반면, '전기/가스업', '기타제조업'은 각 1개 사씩만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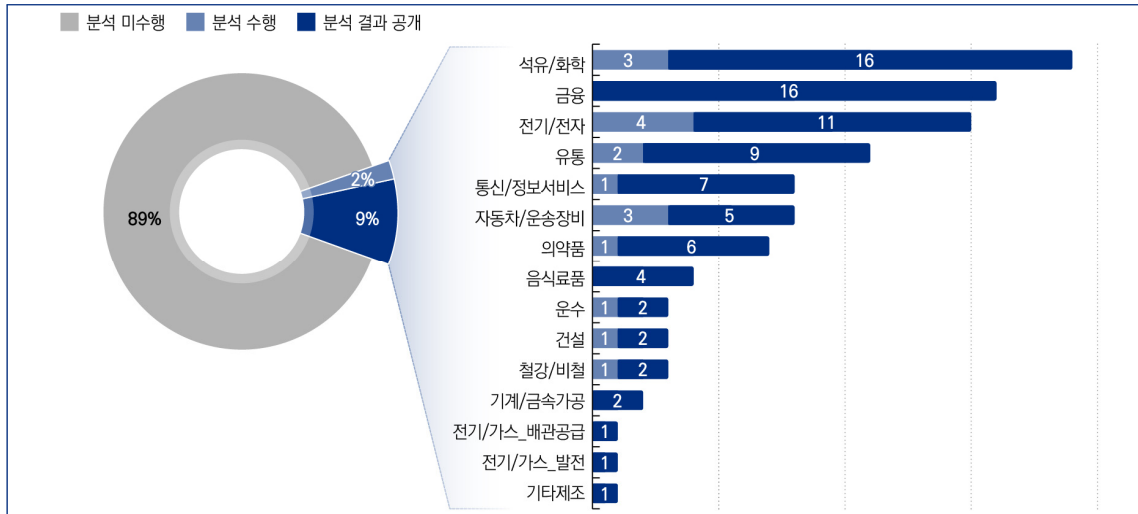
12)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한국회계기준원, 2024.4.30., P23-25

13) 문단 22의 내용은 <별첨 3>,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별첨 4> 참고

14)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

〈그림 7〉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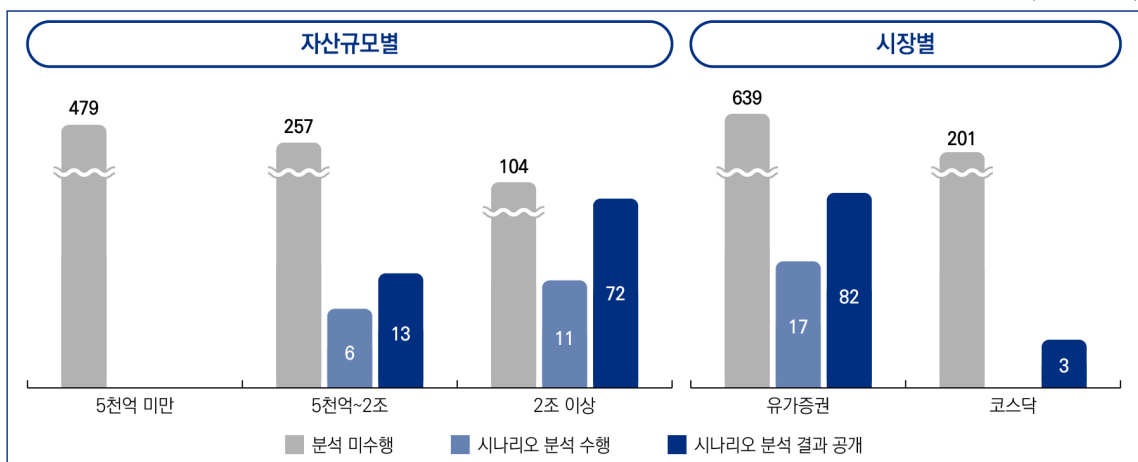
(단위: %, 개사)



- (자산 규모별 현황) 전체 조사 대상 기업 942개 사 중 자산 규모 5천억 미만 기업 479개 사 모두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고, 5천억 이상 2조 미만 역시 전체 276개 사 중 19개 사(7%)만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및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역량 확보가 되어야 함을 파악함. 반면 자산 규모 2조 이상 기업 187개 사 중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기업은 72개 사(39%), 시나리오 분석 수행 기업은 11개 사(6%)로 상대적으로 시나리오 분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시장별 현황) 유가증권 738개 사 중 99개 사(13%) 만이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으며, 코스닥 시장 내 공개 기업은 204개 사 중 단 3개 사(15%)에 불과하여 자산 규모별, 시장별로 기후 시나리오 분석 역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그림 8〉 자산 규모별, 시장별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현황

(단위: 개 사)



#### □ 시나리오 방법론별<sup>15)</sup> 활용도 분석

- KSSB 공개 초안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분석에 포함했는지, 분석에 사용한 시나리오의 방법론이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또는 전환적 위험의 파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함(문단 22의 (2), (가)의 ③)
-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거나 결과를 공개한 102개 사 중 물리적·전환적 시나리오 분석을 모두 수행한 기업은 71개 사,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만 수행한 기업은 28개 사, 전환적 시나리오 분석만 수행한 기업은 3개 사로 확인됨
  -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물리적 위험 분석을 한 99개 사 중 일부 기업(14%)은 2개 이상의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방법론은 IPCC RCP, IPCC SSP, NGFS, IEA 및 기타로 나뉘고 IPCC SSP가 가장 많이 활용됨. 통상 물리적 위험 분석 시 IPCC의 SSP, RCP 시나리오를 활용하지만, 금융업에서는 NGFS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환적 위험 분석에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활용함

〈표 8〉 물리적 시나리오 방법론별 공개 현황

(단위: 개 사)

시나리오 방법론	공개 기업 수 <sup>16)</sup>
IPCC SSP	61
IPCC RCP	37
NGFS 소계	25
NGFS_Net zero 2050	7
NGFS_Current policies	7
NGFS_Delayed transition	6
NGFS_Below 2°C	2
NGFS_NDCs	2
NGFS(세부 시나리오명 확인 불가)	1
NGFS_Low demand	-
NGFS_Fragmented world	-
IEA 종합	1
IEA STEPS	1
IEA NZE 2050	-
IEA APS	-
기타(자체 개발 시나리오 등)	2
총 합	126

15) 각 시나리오 방법론별 종류 및 세부 내용은 <별첨 4> 참고

16) 일부 기업(14%)은 2개 이상의 방법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중복 산정분이 반영됨

- (전환적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전환적 위험 분석을 한 74개 사 중 대부분의 기업(73%)은 2개 이상의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론은 NGFS 시나리오로 확인됨. 일부 기업은 IPCC 시나리오 등 물리적 위험 분석 시나리오를 전환적 위험 분석에 활용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함

〈표 9〉 전환적 시나리오 방법론별 공개 현황

(단위: 개 사)

시나리오 방법론	공개 기업 수 <sup>17)</sup>
<b>NGFS 소계</b>	<b>108</b>
NGFS_Net zero 2050	34
NGFS_Delayed transition	20
NGFS_Current policies	19
NGFS_NDCs	16
NGFS_Below 2°C	12
NGFS(세부 시나리오명 확인 불가)	3
NGFS_Low demand	2
NGFS_Fragmented world	2
<b>IEA 종합</b>	<b>87</b>
IEA NZE 2050	39
IEA STEPS	27
IEA APS	21
<b>기타(자체 시나리오 등)</b>	<b>7</b>
<b>NDC</b>	<b>6</b>
<b>IPCC RCP</b>	<b>3</b>
<b>IPCC SSP</b>	<b>2</b>
<b>총 합</b>	<b>12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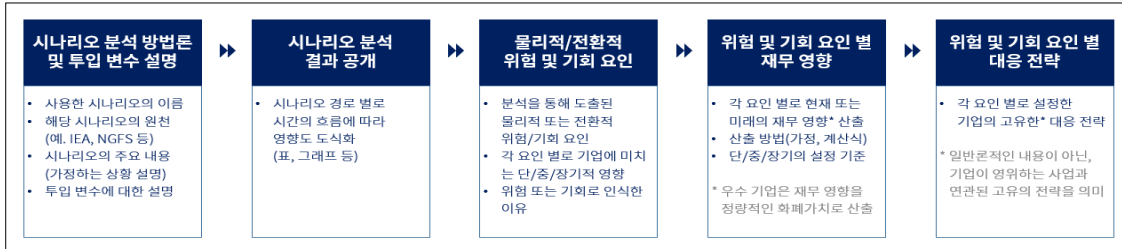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 우수사례

- 국내외로 기후공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이 반드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음. 그럼에도 선도 기업들은 향후 의무화를 대비하여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파악하여 전략 수립 시 반영함
- KSSB 제2호는 문단 22의 (2)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관련 **△투입 변수에 대한 정보,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 △분석이 수행된 보고 기간을 공시하도록 함**<sup>18)</sup>
- 분석을 통해 확인한 우수 공시 기업들의 공통점은 시나리오 분석 과정을 포함한 **기업의 기후 회복력 평가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일련의 과정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공시하여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기후 관련 중요한 정보와 위험관리 수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

17) 대부분의 기업(73%)은 2개 이상의 방법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중복 산정분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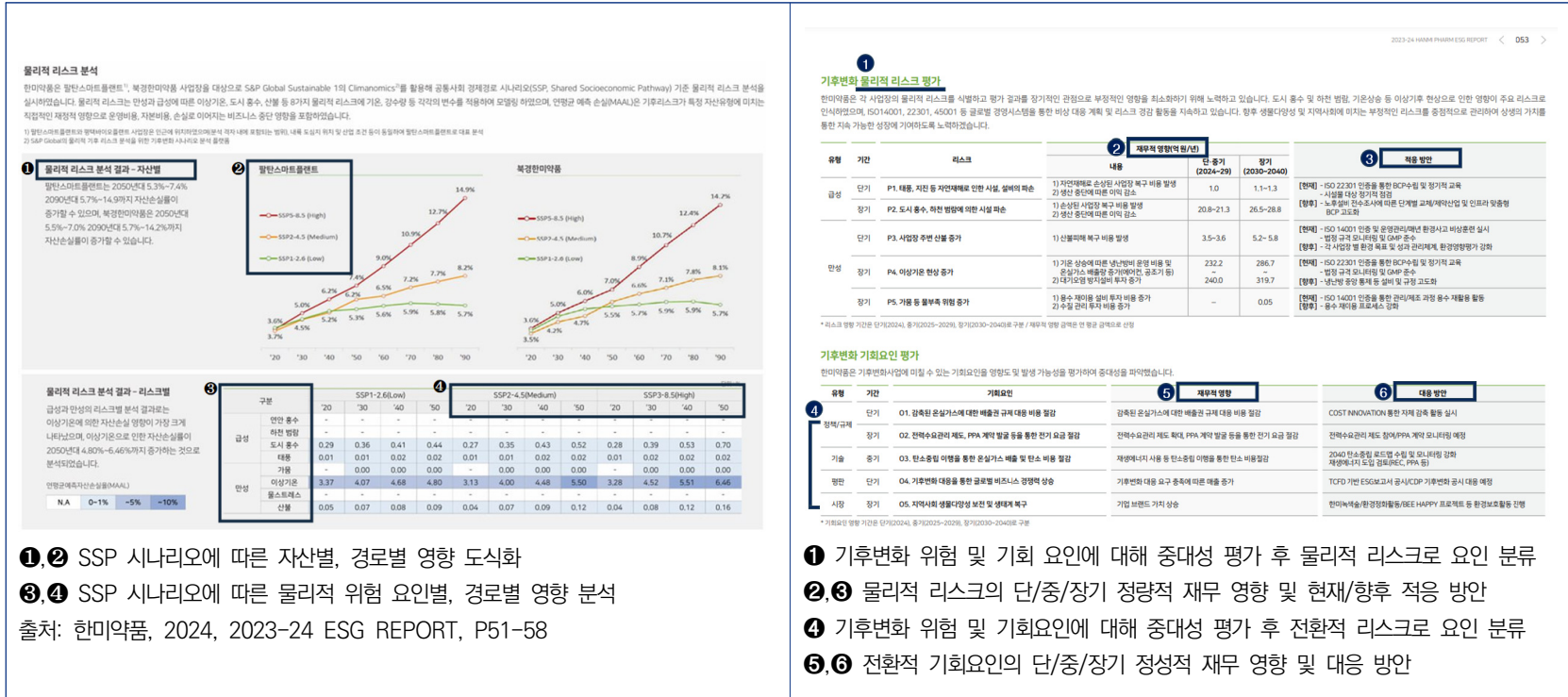
18) KSSB 제2호 문단 22의 세부 내용은 <별첨 3> 참고

〈기후 회복력 평가 관련 공시 과정〉



출처: TCFD Framework, KSSB 공시 요구사항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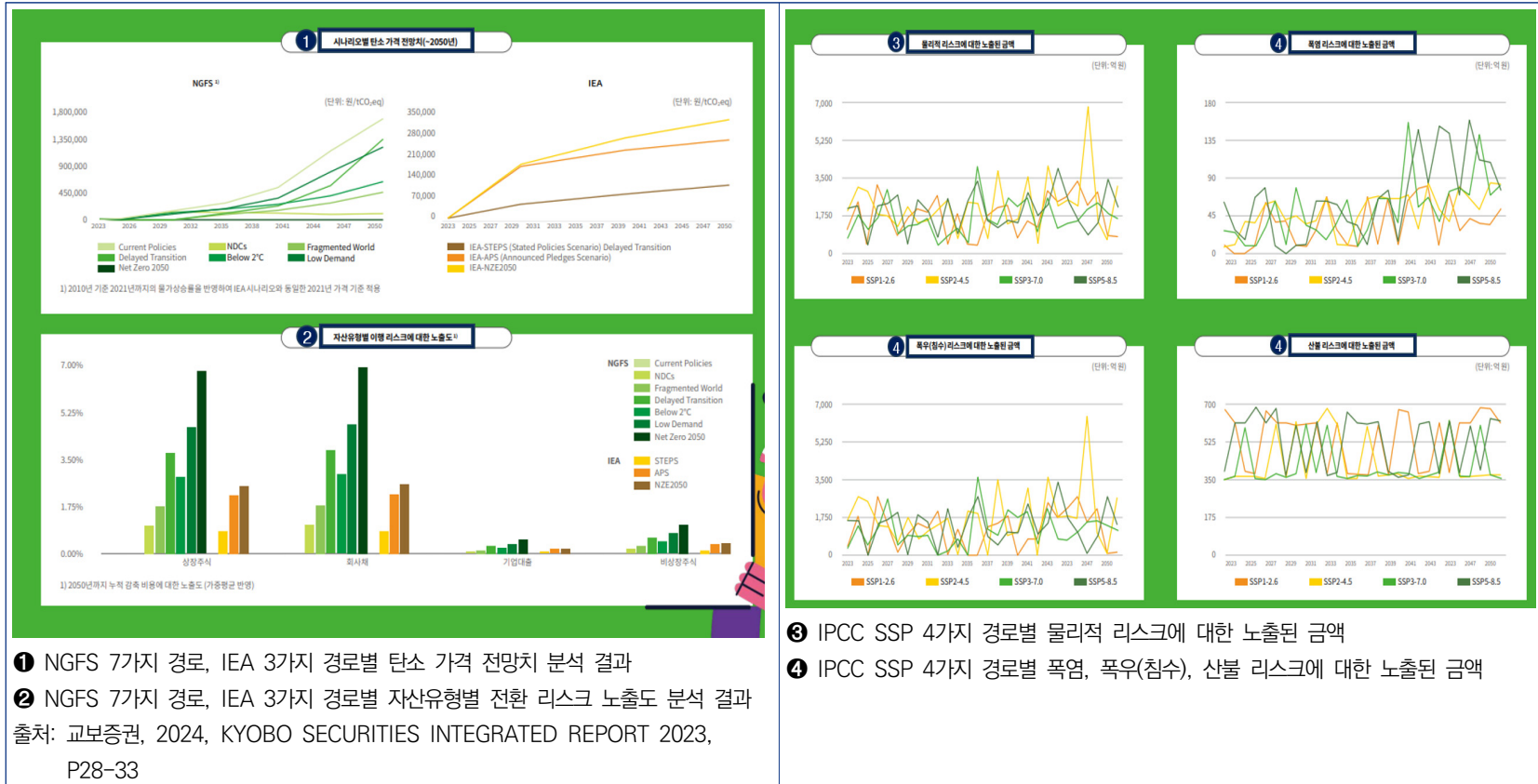
〈그림 9〉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 우수사례 1: 한미약품



**1, 2** SSP 시나리오에 따른 자산별, 경로별 영향 도식화  
**3, 4** SSP 시나리오에 따른 물리적 위험 요인별, 경로별 영향 분석  
 출처: 한미약품, 2024, 2023-24 ESG REPORT, P5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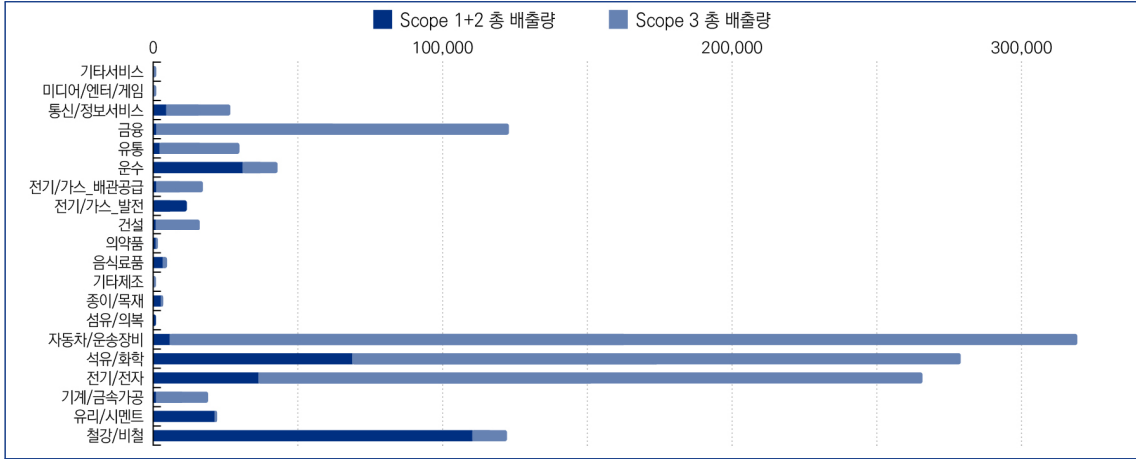
**1**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해 중대성 평가 후 물리적 리스크로 요인 분류  
**2, 3** 물리적 리스크의 단/중/장기 정량적 재무 영향 및 현재/향후 적응 방안  
**4**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해 중대성 평가 후 전환적 리스크로 요인 분류  
**5, 6** 전환적 기회요인의 단/중/장기 정성적 재무 영향 및 대응 방안

〈그림 10〉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 우수사례 2: 교보증권



〈별첨 1〉 2023년 업종별 Scope 1+2 배출량 및 Scope 3 배출량 총합

(단위: 천CO<sub>2</sub>e)



〈별첨 2〉 2023년 업종별 Scope 1+2 배출량과 Scope 3 배출량의 비교

(단위: tCO<sub>2</sub>e)

구분	배출량 총합		평균 배출량	
	Scope 1+2	Scope 3	Scope 1+2	Scope 3
기타서비스	280,061	671,564	9,034	111,927
미디어/엔터/게임	207,618	230,098	10,927	46,020
통신/정보서비스	4,380,037	22,588,471	336,926	2,509,830
금융	728,107	122,385,511	21,415	7,199,148
유통	1,809,498	27,925,815	72,380	2,792,581
운수	30,723,101	12,351,480	2,048,207	1,543,935
전기/가스_배관공급	820,390	16,514,262	164,078	8,257,131
전기/가스_발전	11,759,801	0	2,939,950	0
건설	606,515	15,489,785	37,907	3,097,957
의약품	904,597	585,145	28,269	146,286
음식료품	3,548,074	718,457	122,347	359,229
기타제조	239,314	747,578	21,756	249,193
종이/목재	2,613,011	1,871	290,335	1,871
섬유/의복	45,639	0	22,820	0
자동차/운송장비	5,771,527	314,964,054	206,126	39,370,507
석유/화학	68,744,570	210,885,986	1,057,609	12,405,058
전기/전자	36,657,745	229,737,279	763,703	22,973,728
기계/금속가공	838,376	18,407,650	36,451	4,601,913
유리/시멘트	21,424,273	407,417	1,785,356	203,709
철강/비철	110,232,881	12,279,801	4,082,699	6,139,901

〈별첨 3〉 KSSB 공개 초안 제2호 - 문단 22의 (2)

(2)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방법 및 시점,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이 사용한 투입 변수에 대한 정보.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① 분석에 사용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및 해당 시나리오의 원천
- ②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분석에 포함되었는지
- ③ 분석에 사용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또는 물리적 위험과 연관이 있는지
- ④ 기업이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했는지
- ⑤ 기업이 선택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이유
- ⑥ 분석에 사용한 기간 범위
- ⑦ 분석에 사용한 사업의 범위(예: 분석에 사용된 사업장의 위치 및 사업 단위)

(나) 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주요 가정. 다음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다.

- ① 기업이 운영되는 관할권의 기후 관련 정책
- ② 거시경제 동향
- ③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변수(예: 지역 날씨 패턴, 인구 특성 등)
- ④ 에너지 사용 및 믹스
- ⑤ 기술 개발

(다)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이 수행된 보고 기간(문단 B18 참조)

〈별첨 4〉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의 종류 및 세부 내용

■ IPCC RCP 시나리오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세분화하여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정하고, 대표 농도별 4개의 시나리오(RCP 2.6, 4.5, 6.0, 8.5)로 구별

시나리오명	주요 가정	2100년 CO2 농도
RCP2.6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 수행	421ppm
RCP4.5	온실가스 저감 정책 상당히 실현	538ppm
RCP6.0	온실가스 저감 정책 어느 정도 실현	670ppm
RCP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936ppm

출처: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 IPCC SSP 시나리오

RCP 시나리오에 미래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한 **공동 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를 추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의 완화와 적응 노력에 따른 5개의 시나리오(SSP 1~5)로 구별

시나리오명	주요 가정	2100년 CO2 농도
SSP1-2.6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	432ppm
SSP2-4.5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의 중간 단계 가정	567ppm
SSP3-7.0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 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	834ppm
SSP5-8.5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	1,089ppm

출처: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 NGFS 시나리오

녹색금융협의체(NGFS)에서 기후정책의 강도 및 도입 시기에 따라 4가지 경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탄소 감축 정도, 기술 발전 등에 따라 7가지 경로로 구별

경로	시나리오명	주요 가정
질서있는 이행 (Orderly)	<b>2050 탄소중립 (Net Zero 2050)</b>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하로 억제
	<b>2℃ 이하 (Below 2℃)</b>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대비 80% 감축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2℃ 이하로 억제
	<b>수요 감소 (Low Demand)</b>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 2050 탄소중립 달성
현상유지 (Hot House World)	<b>NDCs</b>	현재 국가별 발표된 단기 기후정책(2030)만 시행
	<b>현 정책 유지 (Current Policies)</b>	기존에 도입된 기후정책 외 추가적인 정책 미도입
무질서한 이행 (Disorderly)	<b>지연된 이행 (Delayed Transition)</b>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다가 2030년 이후부터 파리협정 목표 달성(2℃ 이하)을 위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시
너무 늦은 이행 (Too little, Too late)	<b>파편화된 세계 (Fragmented World)</b>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다가 2030년 이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일부 국가만 기후정책 도입하고 여타 국가들은 미대응

출처: NGFS, 한국은행

■ IEA 시나리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국가별 기후정책의 방향성과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주요 에너지 원 가격의 향후 추이 정보를 반영하여 3가지 경로로 구분**

시나리오명	주요 가정	탄소가격(2050년)
NZE (순배출 제로)	2030년까지 화석연료 대체,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가정(지구온도 +1.4℃)	\$250/tCO <sub>2</sub>
APS (발표된 공약)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 40% 감축 가정(지구온도 +1.7℃)	\$200/tCO <sub>2</sub>
STEPS (명시된 정책)	현 정책 기조의 유지 및 이미 추진 중인 정책 수단, 계획 등을 가정(지구온도 +2.4℃)	\$89/tCO <sub>2</sub>

출처: IEA

■ (NDC 시나리오) 2020년 파리협정 체제로 변화하며 도입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 단위로 수립된 목표. 우리나라는 BAU<sup>1)</sup> 대비 37% 감축하는 초기목표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로 상향함

1)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때의 미래 예측치

## 〈별첨 5〉 Scope 3 카테고리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공급망	카테고리	
업 스트림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제품 및 서비스를 보고 기업이 인도받기 전까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2 자본재	보고 연도에 구매한 자본재를 보고 기업이 인도받기 전까지 해당 자본재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3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연료 및 에너지의 생산 및 수송 또는 기타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구매한 운송 및 유통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5 영업에서 발생된 폐기물	보고 기업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3자 위탁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6 임직원 출장	보고 기업 외 제3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임직원의 비즈니스 출장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7 종업원 통근	종업원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8 업스트림 리스 자산	보고 기업이 임차한 자산의 영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다운 스트림	#9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판매한 운송 및 유통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10 판매된 제품의 가공	판매한 제품(중간재 또는 부품 등)을 구입한 제3자에서 제품의 가공과정 중 발생한 온실가스
	#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보고 기업이 판매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12 판매된 제품의 수명종료 처리	보고 기업이 판매한 제품의 수명종료 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13 다운스트림 리스 자산	보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14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15 투자	보고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 Global News

## 1.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자문위원회, ISSB 기준 도입 권고안 발표

최두진\*

- 2024년 12월 5일,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자문위원회(Sustainability Disclosure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이하 TAC)는 ISSB 공시 기준 도입에 관한 최종 회의를 마침<sup>1)</sup>
-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UK SRS) 제정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자문위원회를 설립함<sup>2)</sup>
  - TAC는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이 ISSB 공시 기준을 검토한 이후 공시 기준의 국외 부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 분석(rigorous technical analysis)을 영국 정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됨
  - 지난 2024년 12월 5일 회의에서 TAC는 IFRS S1, S2의 일부 문단에 대한 변경 의견 외 ISSB 공시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도록 권고함
- ISSB 공시 기준 도입에 대한 TAC의 논의 내용 중 자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 제안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구분	항목	ISSB 공시 기준	TAC 권고안
완화	IFRS S2, 부록 B63 문단 -산업분류체계	은행, 보험업의 금융배출량 측정 시 <b>GICS</b>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이용	은행, 보험업의 금융배출량 측정 시 <b>GICS 외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 산업 분류 체계</b> 이용 가능
	IFRS S1, 본문 64문단 -보고 기간	<b>현재 보고 기간 데이터</b> 이용	현재 보고 기간 데이터 이용 불가 시 <b>이전 연도 데이터 및 추정 데이터</b> 이용 가능
	IFRS S1, 부록 E5 문단 -경과규정(공시 범위)	첫 <b>1년간</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만 공시	첫 <b>2년간</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만 공시, 3년 차 이후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공시
강화	IFRS S1, 부록 E4 문단 -경과규정(통합 공시)	<b>1년 차</b> 보고 시 <b>재무정보 공개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b> 허용(재무제표 선발행 후 지속가능성 공시 허용)	<b>해당 문단 제거</b> 권고
기타	기타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b>간소화</b> 및 공시기준 간 <b>통합 방안</b> 마련 권고

- TAC의 권고 내용은 ▲공시 데이터의 분류 및 추정에 관한 기준 완화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권고안에선 은행,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① GICS 외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 산업 분류 체계(ICB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② GHG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과거 데이터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doojin.choi@cgs.or.kr

1) <https://www.frc.org.uk/library/external-groups/uk-sustainability-disclosure-tac/uk-sustainability-disclosure-tac-meetings-and-summaries/>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sally-duckworth-appointed-as-new-chair-of-technical-advisory-committee--2>

혹은 추정치 사용을 허용함

- ❶ GICS 분류체계 강제 적용 시 기존 규제/공시에 대응하던 기업의 데이터 일관성(consistency)을 악화할 수 있으며, ❷ 금융배출량 산정 시 보고기간 말 마감 재무상태표를 이용해 산출하기에 보고기간 배출량을 즉시 측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어 해당 문단에 유연성(flexibility) 확보를 주문함
  - TAC는 이러한 공시 데이터의 유연성 확보가 기업 간 비교가능성(comparability)<sup>3)</sup>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공시 비용을 절감하고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임
  - 한편, 공시 기준 최초 적용 연도의 통합 공시 완화 경과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공시 데이터의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문단에 대해 TAC 위원들은 ‘이미 연간 기후 공시를 수차례 이상 수행한 영국 기업들에 불필요한 문단’이라는 입장과, ‘그럼에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 모두 존재했음에 따라 추후 일부 인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 또한, 기후 위험 외 지속가능성 공시를 1년 더 유예하고 공시기준(ISSB 기반 UK SRS, ESRS)간 통합/간소화를 제안한 점은 복수 공시기준 충족에 따른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향후 TAC는 영국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에 기술적 평가 보고서와 승인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임<sup>4)</sup>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25년 1분기까지 IFRS S1, S2에 기초한 자체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차질이 없을 경우 2026년 1월 이후 상장사들에 적용될 전망임<sup>5)</sup>

3) IFRS S1 부록 D.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보강적 질적특성(이해가능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4) TAC, 2024.12.05, “TAC Public Meeting December 2024 Paper 2: TAC draft endorsement recommendations”

5)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britain-eyes-2026-start-tougher-company-climate-disclosure-2024-05-16/>

---

---

## Global News

### 2. 유럽보험연금감독청, 지속가능성 위험의 건전성 조치 최종 보고서 발표

김수연\*

-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으로 인한 보험사 손실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보험사가 2022년 자연재해로 지급한 보험액은 1조 2,556억에 이르며, 이는 2017년 지급액인 3,947억에 비해 5년간 3.2배 정도 증가한 금액임<sup>1)</sup>
  -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보험업계의 2024년 연간 손실이 1,510억 달러로 예상됨<sup>2)</sup>
  - 기후 위기로 인한 보험사 손실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 유럽의 경우,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후 위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속도가 비교적 빠름
  - 유럽 환경청이 2024년 4월 발표한 유럽 기후 위험 평가(European Climate Risk Assessment)<sup>3)</sup>에 따르면 유럽은 가장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는 대륙임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지난 11월 7일 솔벤시III<sup>4)</sup> 내 지속가능성 위험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on the prudential treatment of sustainability risks within Solvency II)<sup>5)6)</sup>를 발간함. 해당 보고서는 1) 자산과 전환 리스크 노출(Assets and Transition Risk Exposures), 2) 비생명 보험 언더라이팅과 기후 변화 적응 조치(Non-life Underwriting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3) 건전성 측면의 사회적 리스크와 영향(Social Risks and Impacts from a Prudential Perspective)으로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룸
  - 자산과 전환 리스크 노출(Assets and Transition Risk Exposures)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과거 및 미래 전망 분석 결과, 화석 연료 관련 주식과 채권은 다른 경제 활동에 관련된 자산보다 전환 리스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sykim@cgs.or.kr

\*\* 아래 각주에 대하여 관련 URL을 하이퍼링크로 첨부하여 됨

1) 23.08.05., 국회의원 장혜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내보험사 자연재해 보험금 지급, 5년새 3배로 <https://janghyeyeong.com/20/?q=YToyOntzOjQ6InBhZ2UiO2k6MTc7czoxMjoia2V5d29yZF90eXBlljtzOjM6ImFsbCI7fQ%3D%3D&bmode=view&idx=16050599&t=board>

2) 24.09.30., 하나금융연구소, 김종현 저, 기후 위기로 확대되는 보험사의 손실, 12페이지 <https://www.hanaif.re.kr/boardDetail.do?hmpSeqNo=36276>

3) 24.03.11., 유럽환경청(EEA), European Climate Risk Assessment <https://www.eea.europa.eu/en/analysis/publications/european-climate-risk-assessment>

4) 2016년 1월에 발효된 EU 내 보험 및 재보험 기업을 위한 건전성 규제 체계를 의미함

5) 24.11.07.,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Report on the Prudential Treatment of Sustainability Risks [https://www.eiopa.europa.eu/publications/final-report-prudential-treatment-sustainability-risks-insurers\\_en](https://www.eiopa.europa.eu/publications/final-report-prudential-treatment-sustainability-risks-insurers_en)

6) 24.11.07.,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IOPA recommends a dedicated prudential treatment for insurers' fossil fuel assets to cushion against transition risks [https://www.eiopa.europa.eu/eiopa-recommends-dedicated-prudential-treatment-insurers-fossil-fuel-assets-cushion-against-2024-11-07\\_en](https://www.eiopa.europa.eu/eiopa-recommends-dedicated-prudential-treatment-insurers-fossil-fuel-assets-cushion-against-2024-11-07_en)

- 따라서 높은 전환 리스크를 가진 화석 연료 관련 자산 투자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을 권장함
  - 주식의 경우 최대 17%, 채권의 경우 최대 40%까지의 규모로 관련 자본의 추가 적립을 권장함
  - 다만 영향평가 결과, 보험사들이 직접 보유한 화석 연료 관련 주식 또는 채권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러한 추가 자본요구가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비생명 보험 언더라이팅과 기후 변화 적응 조치(Non-life Underwriting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 기후 관련 예방 조치(예: 방수문 설치, 건물 주변 내화성 식물 조경)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함
  - 위와 같은 기후 관련 예방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으나, 데이터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 후 분석을 반복할 것을 제안함
- 건전성 측면의 사회적 리스크와 영향(Social Risks and Impacts from a Prudential Perspective)
- 사회적 리스크가 자산 및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건전성 리스크로 나타날 가능성을 논의함
  - 사회적 리스크가 건전성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함. 따라서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 및 지급 여력 평가(ORSA)에서 사회적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용 지침 개발을 제안함
  - 데이터 및 리스크 모델이 부족하여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특정 관리 방안을 권고하지 않음
- 국내 보험업계는 체계적인 기후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의 초기 단계에 있음
- 지난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권(은행 7개 사, 생명보험사 4개 사 및 손해보험사 4개 사)과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추진하여 국내 맞춤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
  - 개별 보험회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후 리스크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한 사례가 있음
    - 삼성화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목적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보험 인수를 중단하기로 함<sup>7)</sup>
    - DB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기상청 빅데이터와 GIS 맵핑 기술을 결합한 일반 보험 자연재해 위험도(6종)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보험 계약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7) 23.07.17., 삼성화재, ESG Report(통합보고서), 17페이지 [https://www.samsungfire.com/company/download/SFMI\\_Integrated\\_Report\\_K\\_2023.pdf](https://www.samsungfire.com/company/download/SFMI_Integrated_Report_K_2023.pdf)

있다고 밝힘<sup>8)</sup>

-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 보험업계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국내 보험업계가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가 빠른 지역의 보험업계 동향을 파악하며, 선제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무적 리스크 관리 수준에 준하는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임
  - 기후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기후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위험 및 기회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 권고됨
  -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 리스크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존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전사적으로 관리할 것이 권장됨

8) 24.06.27., DB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통합보고서 2024, 45페이지 [https://www.idbins.com/pcweb/bizxpress/cmy/inv/cm/\\_etc/2024\\_%EC%A7%80%EC%86%8D%EA%B0%80%EB%8A%A5%EA%B2%BD%EC%98%81%EB%B3%B4%EA%B3%A0%EC%84%9C\\_DB%EC%86%90%ED%95%B4%EB%B3%B4%ED%97%98\\_KOR\\_ver.pdf](https://www.idbins.com/pcweb/bizxpress/cmy/inv/cm/_etc/2024_%EC%A7%80%EC%86%8D%EA%B0%80%EB%8A%A5%EA%B2%BD%EC%98%81%EB%B3%B4%EA%B3%A0%EC%84%9C_DB%EC%86%90%ED%95%B4%EB%B3%B4%ED%97%98_KOR_ver.pdf)